

BETTER TOGETHER 2017



Designing a Culture of Empathy,
Culture of Peace

목차



1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이 열리기까지

공감과 협업의 시대, 그리고 컬처디자이너⁸
문화로 벽을 허무는 컬처디자이너¹⁰
월드컬처오픈과 컬처디자이너¹⁴
월드컬처오픈 x 청주¹⁶
청주 옛 연초제조장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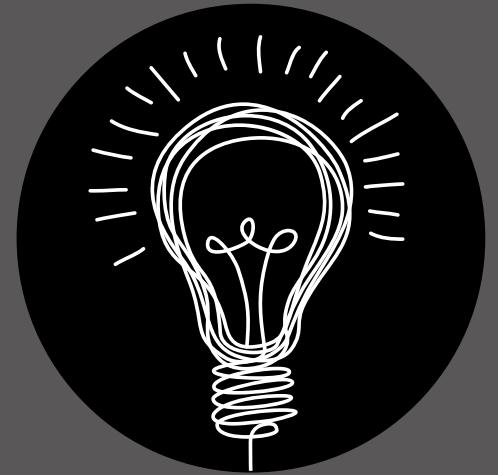
2 글로벌 컬처디자이너들의 만남, Better Together 2017

Better Together 2017: 3일 간의 여정³⁴
오프닝 세레모니³⁸
C!talk 글로벌⁵²
오픈보이스⁸⁴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¹¹⁶
Better Together 나이트²⁵²
Farewell 나이트²⁷⁰

3 Better Together 2017이 남긴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Better Together 2017이 남긴 의미²⁸⁰
앞으로 이어지는 여정³⁰⁰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이
열리기까지**



1

공감과 협업의 시대, 그리고 컬처디자이너

갈등과 전쟁으로 명들고 있는 현대 지구촌에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평화. 우리는 모두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는데 왜 현실은 정반대일까?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 첫 발은 공감^{共感}일 것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도 말했듯, 21세기는 공감과 협업의 시대입니다. 이미 전세계 곳곳에는 이런 시대의 필요와 흐름을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여 자신만의 방법과 문화, 전문성으로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는 수많은 공익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념과 사회적 차별의 경계를 넘어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 나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혼자만의 선택이 아님을 알고 작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미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문화로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는 그들은 컬처디자이너^{Culture Designer}입니다.



문화로 벽을 허무는 컬처디자이너

꿈꾸는 나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제약의 벽.
다름을 차별로 만드는 우리 마음의 벽.
인종, 이념, 종교, 지역 간의 벽.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벽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지구촌에 희망은 있는 걸까?
암울한 생각이 들게 하는 세상의 벽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보면
크건 작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묵묵히 끊임없이 벽을 허물고
우리의 삶과 사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노력을
펼쳐 나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음에 놀라게 됩니다.

불편함을 가진 이들을 위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특별한 신발을 만드는 구두장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해변의 표류물을 주워 모아
주얼리로 변모시키는 비치코머^{Beach-comber},
음악을 통해 해외 오지의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의지를 키워 주는 음악 교육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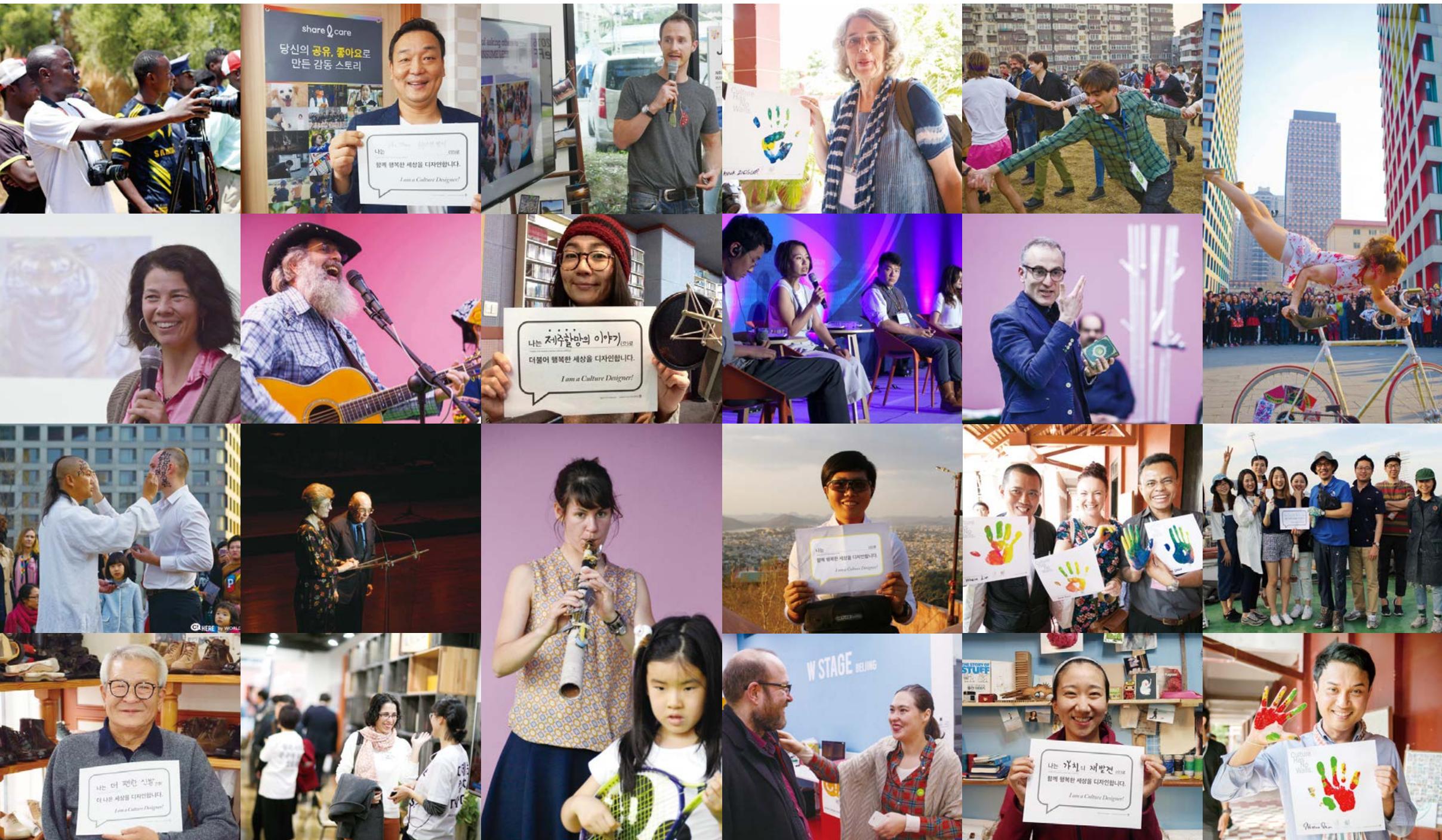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장애의 ‘다름’으로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 소통하는 장애인 예술가

최첨단의 기술부터 적정기술을 아울러
더불어 함께 행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과학자
십만의 도시양봉가 양성을 꿈꾸는
건강한 도시생태 디자이너,

숲을 사랑하고 숲을 이해하고
숲을 보전하는 데 헌신하는 숲 해설가.

이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한
자신만의 열정을 당당하게 펼쳐나가며
서로 창의적으로 교류해갈 때,

진정한 공감과 협업의 문화를 바탕으로
나라와 나라, 이념과 종교, 인종의 벽을 넘어
세계인이 서로 공감하고 행복해지는 길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컬처오픈과 컬처디자이너

월드컬처오픈은 1999년, 21세기 공감^{Empathy}과 협업^{Collaboration}의 시대를 맞이하여, 인류 공통의 바람인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방법을 교류하기 위한 문화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월드컬처오픈은 전세계 다양한 지역, 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세계 문화교류, 지역기반 문화나눔 운동, 국제적 문화지원 사업들을 크고 작게 전개해오며,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모여 공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열린 마당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월드컬처오픈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실천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월드컬처오픈은 2016년부터 이런 숨은 영웅들, 지역의 창의 인재들을 ‘컬처디자이너’라 이름하여 이들을 전국적으로 발굴하는 캠페인을 시작해 지금까지 1500여 명의 컬처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컬처디자이너 페어, 컬처디자이너 데이, 세계문화대회 등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컬처디자이너들이 모여 지혜와 아이디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협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월드컬처오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컬처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응원하며 이들과 함께 지구촌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모색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공익적인 열정이 지구촌 전체에 더 큰 공감으로 연결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월드컬처오픈 x 청주

청주시는 한반도의 중부에 위치한 충북 제1의 도시로 도청 소재지이자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문화역사적으로는 금속활자로 인쇄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직지심체요철(1377년)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교육도시라 불렸던 청주에는 광복 1호 대학인 청주대학교를 비롯하여 7개의 대학이 있으며, 매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직지 페스티벌, 한중일 젓가락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개최하며 역사 깊은 예술과 문화의 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컬처오픈은 청주가 더 나아가 미래의 인재들이 모이고 양성되는 창의교육의 허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세계의 인재들이 모이고 다시 세계로 뻗어가는 21세기 미래형 인재 양성과 창의교육의 허브 도시, 청주’. 공예, 공연,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창의적인 융복합 교육의 활성화를 고민해온 청주는 창의교육에 대한 비전에 공감하여, 월드컬처오픈과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7일, 교육도시를 넘어 생명도시, 문화도시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청주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하는 민·관 활동가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월드컬처오픈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계문화교류

지역과 세계 문화가 연결되어 조화롭게 교류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문화 인재 발굴 양성

지역문화의 주체인 창의적 문화 인재들과 컨텐츠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협력한다.

지역문화기반 확대

지역 구성원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주도적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을 확대하는 데 협력한다.

공동 문화사업 추진

문화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협력한다.

이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월드컬처오픈과 청주시는 지역 인재의 발굴, 양성, 교류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2017년 7월 청주시는 월드컬처오픈이 진행하는 글로벌 컬처디자이너들의 만남,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청주에서 개최하기 위해 유치 신청을 합니다. 이후 유치 승인이 되어 청주시는 BETTER TOGETHER 2017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컬처오픈과 함께 행사를 공동주최하기에 이릅니다.

BETTER TOGETHER 2017

당신은 이 오래된 담배공장을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Write or draw your ideas here.
Be as creative as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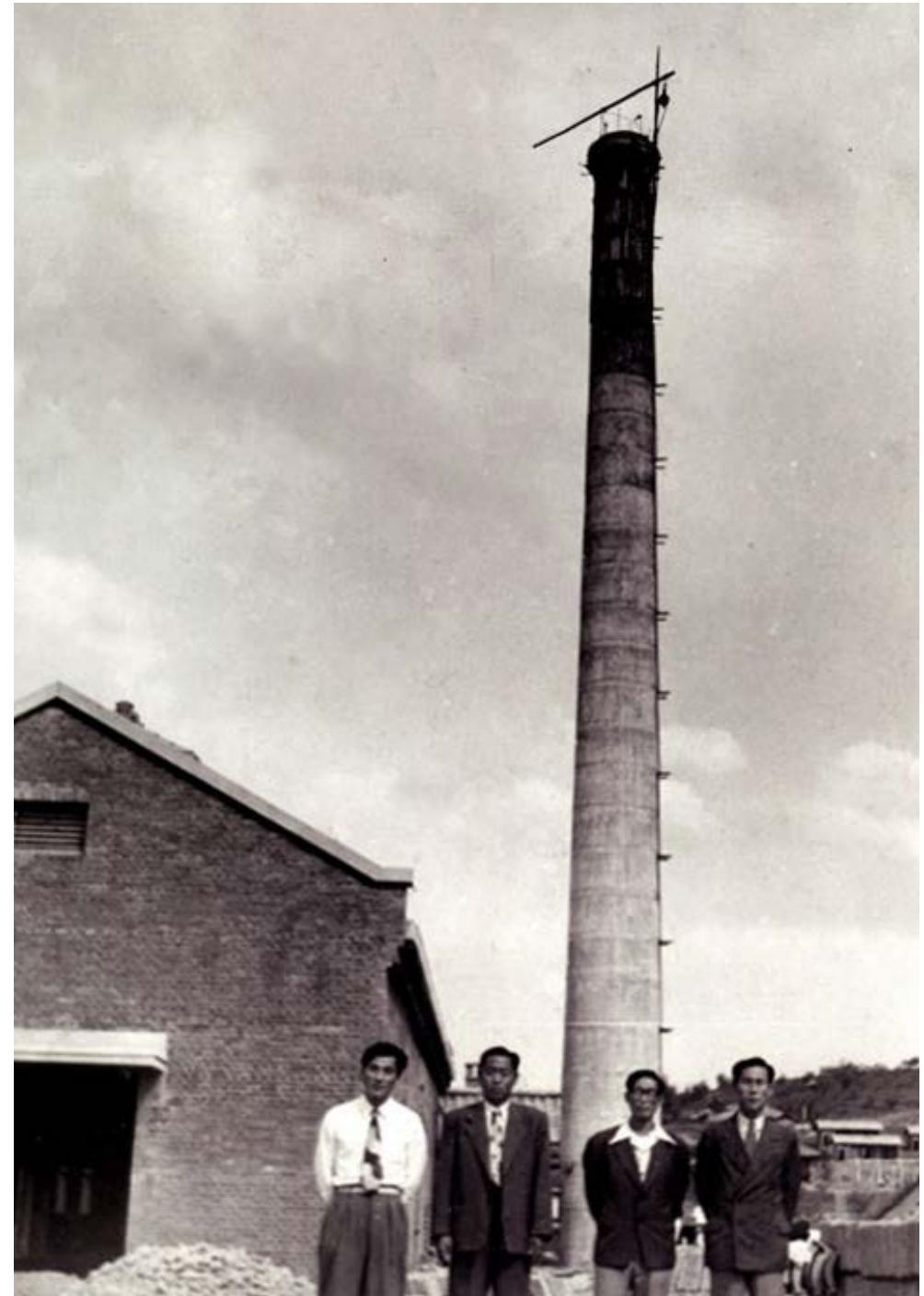
What would you transform this Old Tobacco Factory into?
Write or draw your ideas here.
Be as creative as possible!

청주 옛 연초제조창

청주 연초제조창은 1946년에 건립되어 한 때 3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며 연간 100억 개비의 담배를 생산했던 청주 근대산업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산업화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 1999년에 담배원료공장이 폐쇄되고 2004년 제조공장이 완전 가동 중단되었으나, 청주시는 아직까지 이곳을 헐지 않고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품은 연초제조창이지만 아파트 용지로 검토되는 등 헐릴 위기에 처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2011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격년으로 꾸준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청주의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도 개발과 존치, 효율 중심의 도시개발과 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이의 치열한 찬반양론 논쟁 속에서 개발 명분이 더 우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드컬처오픈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가치와 공익적인 가치를 만들어가는 컬처디자이너들의 교류 장소로 청주 옛 연초제조창의 상징적 의미를 중요하게 보고 Better Together 2017의 장소로 적극 제안, 추진했습니다. 불 꺼진 담배공장에서 지구촌 50개국의 컬처디자이너들이 모여 문화의 꽃을 피우고 평화와 공감의 열린 목소리를 낸다면, 현대화 과정에서도 헐리지 않고 보존된 이 근대식 대형 콘크리트 공간에서 세계 문화기획자들이 함께 미래를 그려낸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월드컬처오픈은 옛 연초제조창의 육중한 회색
콘크리트 공간 속에서 컬처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Better Together 2017의 모습을 상상하며,
또한 청주 시민들이 사람과 문화를 바탕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Tomorrow 팩토리'의
가능성을 잠시나마 느끼고 갈 수 있기를
바라며, Better Together 2017의 크고 작은
요소 하나 하나를 계획하고 준비해나갔습니다.

옛 연초제조창의 미래를 제시하는 하나의
시험대가 될 수도 있는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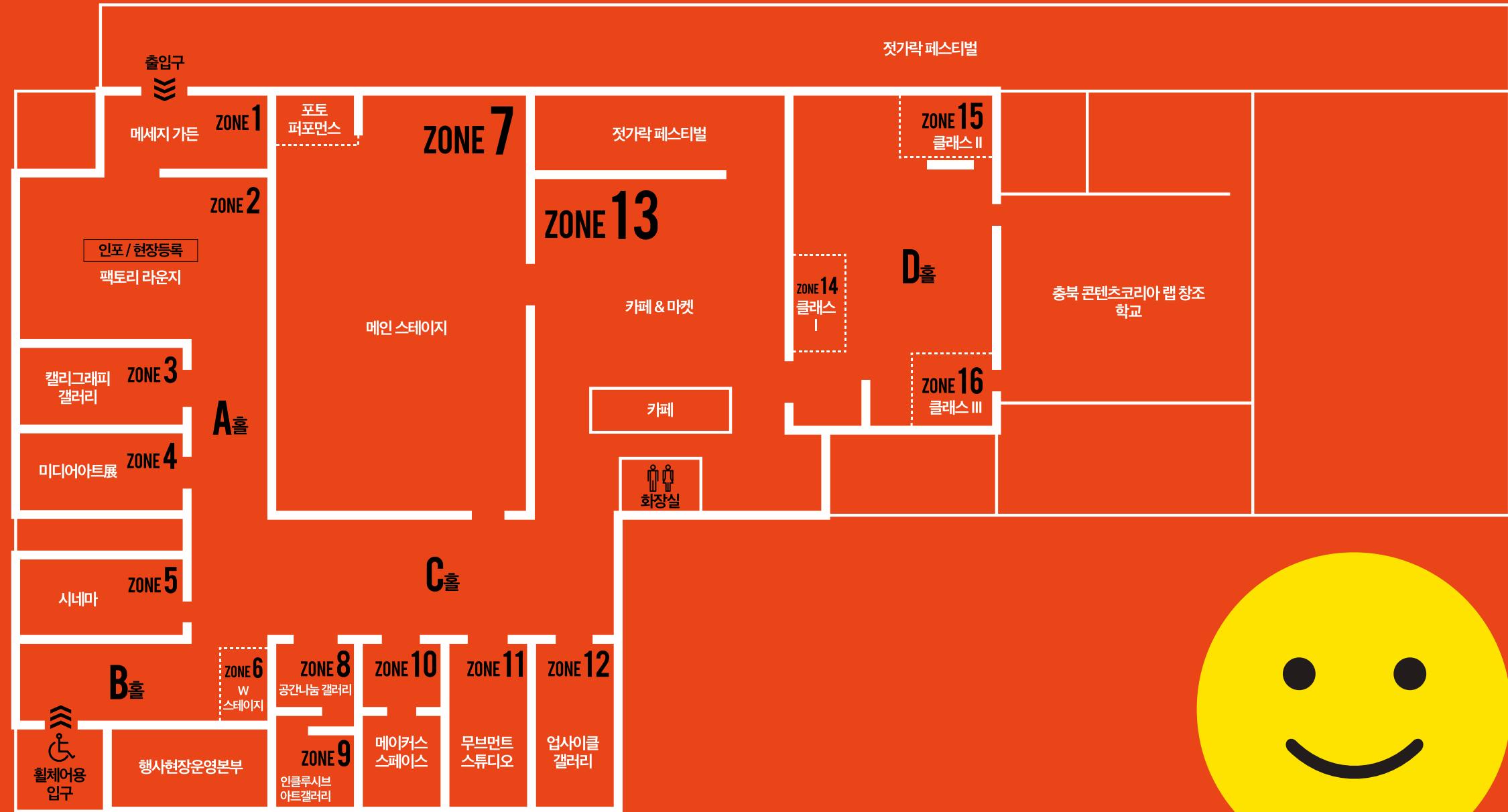




An aerial photograph of a dense urban area, likely a Korean city, showing a mix of residential apartment complexes, smaller houses, and industrial buildings. A large green circle is overlaid on the upper left portion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ext "WE ARE BETTER TOGETHER".

WE ARE
BETTER
TOGETHER

행사장 지도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들의 만남,
**BETTER
TOGETHER**
2017



2

BETTER TOGETHER 2017: 3일 동안의 여정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함께 디자인해요!
Designing a Culture of Empathy, Culture of Peace

불 꺼진 담배공장에서 전 세계 50개국, 500여 명의 컬처디자이너들이 모여 문화의 꽃을 피우고 평화와 공감의 열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글로벌 컬처디자이너들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펼치며 3일간의 글로벌 축제로 진행된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에서는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 아래 컬처디자이너들과 일반 참가자들이 옛 청주연초제조창 일원에 모여 지구촌 문제에 대해 지혜와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교육, 예술, 환경, 기술, 인문, 사회적 기업, 건강, 생명, 디자인, 미디어, 과학, 평화, 사회정책 등 문화의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만큼 전세계 컬처디자이너들의 모습도 다양했습니다. 언어와 국적을 뛰어넘고, 연령과 계층을 뛰어넘어 ‘문화’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현장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첫 날 오프닝 세레모니는 대ぶり 퍼포먼스와 플래시몹의 협연 퍼포먼스로 시작해, 참석자가 함께 만들어 장관을 연출한 ‘공감&평화 메시지 만들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열띤 분위기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 생존자로 음악을 통해 전세계에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월드뮤지션 장 폴 삼푸투와 지난 30여 년 간 시대의 아픔을 보듬으며 노래해온 가수 김원중의 협연 하모니로 이어져 현장에 있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3일 동안 컬처디자이너들이 직접 기획 및 디자인하고 참여한 C!talk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오픈보이스, Better Together 나이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공감과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더들이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C!talk 글로벌’은 UCLA 교수이자 세계적인 로봇학자 ‘데니스 홍 미국’,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이자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인 ‘기시미 이치로 일본’, 뉴욕타임스퀘어 공공미술 디렉터 ‘데브라 시몬 미국’ 등 저명인사들의 강연으로 ‘공감과 평화’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각 연사 별로 진행된 ‘연사와의 만남’에서도 일반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심도 있는 질문과 대화들이 이어졌죠.

행사 기간 내내 연초제조창 곳곳에서 진행된 교류와 배움의 마당,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에서는 다양한 공익활동가들의 토크와 클래스들을 비롯하여 메이커스 워크숍, 라이브 포토 퍼포먼스, 무브먼트 워크숍, 업사이클 전시, 장애인 예술가들의 인클루시브 아트 전시, 평화와 공존을 주제로 하는 해외 다큐멘터리 상영 등 시민들이 함께 배우며 즐기는 140여 개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라운드테이블 토론 ‘오픈보이스’에서는 참가 컬처디자이너들이 지역과 분야가 다양하게 섞인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의 일상과 지역사회, 지구촌 곳곳에서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짹 티울 수 있는 다양한 실천방안을 찾아내는 열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진행된 베터투게더 나이트 Better Together Night에서는 2분 오픈마이크 무대를 통해 미국, 캐나다, 중국, 스페인, 루마니아, 예멘, 시리아, 카자흐스탄, 핀란드, 나이지리아, 그리스 등 50개국 컬처디자이너들의 열정적인 활동 발표가 두 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베터투게더 나이트의 현장은 전세계 컬처디자이너들이 같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되기도 했죠.

청주 시민들을 포함하여 현장에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 회색 콘크리트의 옛 담배공장, 연초제조창이 문화의 옷을 입고 세계인들의 창의적인 교류의 장으로 변신한 모습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구촌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반목의 문제 또한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백인백색 百人百色 컬처디자이너들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해결의 단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통해 언어와 인종, 지역과 분야의 벽을 넘어 감성과 이성, 그리고 오감을 열고 함께 공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다같이 행복한 세상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함께 느껴본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Opening Ceremony

오프닝 세레모니

2017. 11. 10금 18:00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의 시작을 알린 오프닝 세레모니.

Better Together 2017의 공감과 평화의 여정은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아트 퍼포먼스로 그 포문을 열었습니다.

캘리그래피와 플래시몹 퍼포먼스의 컬라보레이션 무대가
오프닝 세레모니의 화려한 시작을 알립니다.

금요일 저녁 6시, 관객의 입장이 완료된 메인스테이지.
공간을 울리는 강렬한 리듬 속, 사면의 조명이 켜지자
무용의 일상화를 모토로 활동하는 공연예술단체 언엔딩^{UNENDING}의
플래시몹 퍼포먼스가 시작됩니다.
메인 스테이지의 중심으로 양 사방 바닥에 깔린 흰 천을 무대 삼아
무용수는 자유로이 색색의 물감을 흘뿌리며
각자의, 또 공동의 움직임을 선사합니다.

모든 관객이 물감 플래시몹에 빠져든 순간, 음악과 움직임이 정자됩니다.
잠시 멈춘 공간의 적막 속, 메인스테이지의 중앙 무대 위로 핀 조명이 켜지고,
흰 한복 차림의 남자가 대봇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글의 대중화에 앞장 서는 최일섭 캘리그래퍼입니다.
관객을 향한 정중한 인사와 함께 8m x 8m 무대를 화선지 삼아 글씨를 써 내려갑니다.
강렬하면서도 부드럽게,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자태로 거대한 붓이 무대를 수놓았습니다.
최일섭 캘리그래퍼의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산업화의 상징인 옛 담배공장에서, 현대의 빠른 비트에 맞추어, 대봇으로 ‘공감과 평화’를
써내려가는 그의 퍼포먼스는 시작과 끝까지 공간 속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불잡았습니다.

플래시몹의 참신함과 캘리그래피의 웅장함이 전달하는 오프닝 세레모니의 첫 번째 퍼포먼스에 뒤이어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는 두 가수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메인스테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프리카의 그래미’로 불리는 코라 어워드 수상자이자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뮤지션 장 폴 삼푸투.
30여 년 간 한국인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함께 하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노래를 불러 온 가수 김원중이
각각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 다른 듯 닮은 삶의 여정을 걸어온 한국과 르완다의 두 가수가
무대에서 함께 하모니를 만듭니다.

We are Beautiful.

“우리는 용서했고 사랑했으니 함께 가는 거야,
더 큰 내일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서로 마주보는 거야……”
노랫말에 이끌린 듯 하나 둘, 컬처디자이너들이 춤을 추며 무대로 향합니다.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나되는 순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WE ARE BEAUTIFUL by Jean Paul Sampatu

Some say the world is lost today
Some say the future is dark and gray
Not us! Not here!
We do not fear
We are beautiful. See us beautiful!

We sing together across the land
Singing of love standing hand in hand
We sing the song of life today
We laugh together as we make this vow

We will live, we will love
We will learn, we will grow
We will sing, we will dance
Until all people know

We are the future of humanity
We are the world now in community
We are beautiful, see how beautiful
We are One.

다른 언어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두 뮤지션이 선사하는 평화로운 멜로디에 관중들은 박수로 리듬을 타고,
춤으로 흥을 표현하는 등 Better Together 2017의 즐거운 시작을 자축했습니다.

월드컬처오픈과 청주시가 공동개최하고, 충청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은 지역과 세계가 만나는 문화행사이자 다양한 민관파트너들이 함께 만드는 국제행사라는 의의도 가집니다.

이시종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 부시장, 홍석현 월드컬처오픈 위원장은 모두 산업화의 공장에서 문화의 공장으로 변화중인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평화와 공감’을 주제로 의미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에 큰 축하와 기쁨을 표하며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Better Together 2017 오프닝 세레모니의 마무리는 청풍명월의 양반고장 청주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더욱 빛이 났습니다. 청주 안덕벌 주민과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예술뛰내’와 음식역사문화 창의학교를 운영하는 ‘진지박물관’이 함께 준비한 개막날의 만찬 음식. 특별히 안덕벌 지역의 아픈 역사와 문화를 담은 ‘안덕벌 콩 이야기’가 음식에 담겼습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온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자 직접 현장에서 전을 부치는 정성에서 훈훈한 한국인의 정, 청주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문화를 나누며 웰컴 디너가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을 장식한 주인공은 세계 민속 프로젝트 그룹 투게더 퍼더^{Together Further}였습니다. 청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서로 다른 국적의 멤버들이 몽골,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등의 전통악기로 세계의 민속음악을 연주하며, 글로벌 컬처디자이너들의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새로운 만남과 환영의 분위기로 가득했던 오프닝 세레모니, Better Together 2017의 첫 날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Gillies Ian Niwali, Jean Paul Sampatu, Jean Pierre Ndabakurauye, Together Further, 고도원, 김원중, 내덕2동 부녀회, 송재호, 언엔딩^{UNENDING}, 예술뛰내, 이범석, 이시종, 조연우, 진지박물관, 최일섭, 홍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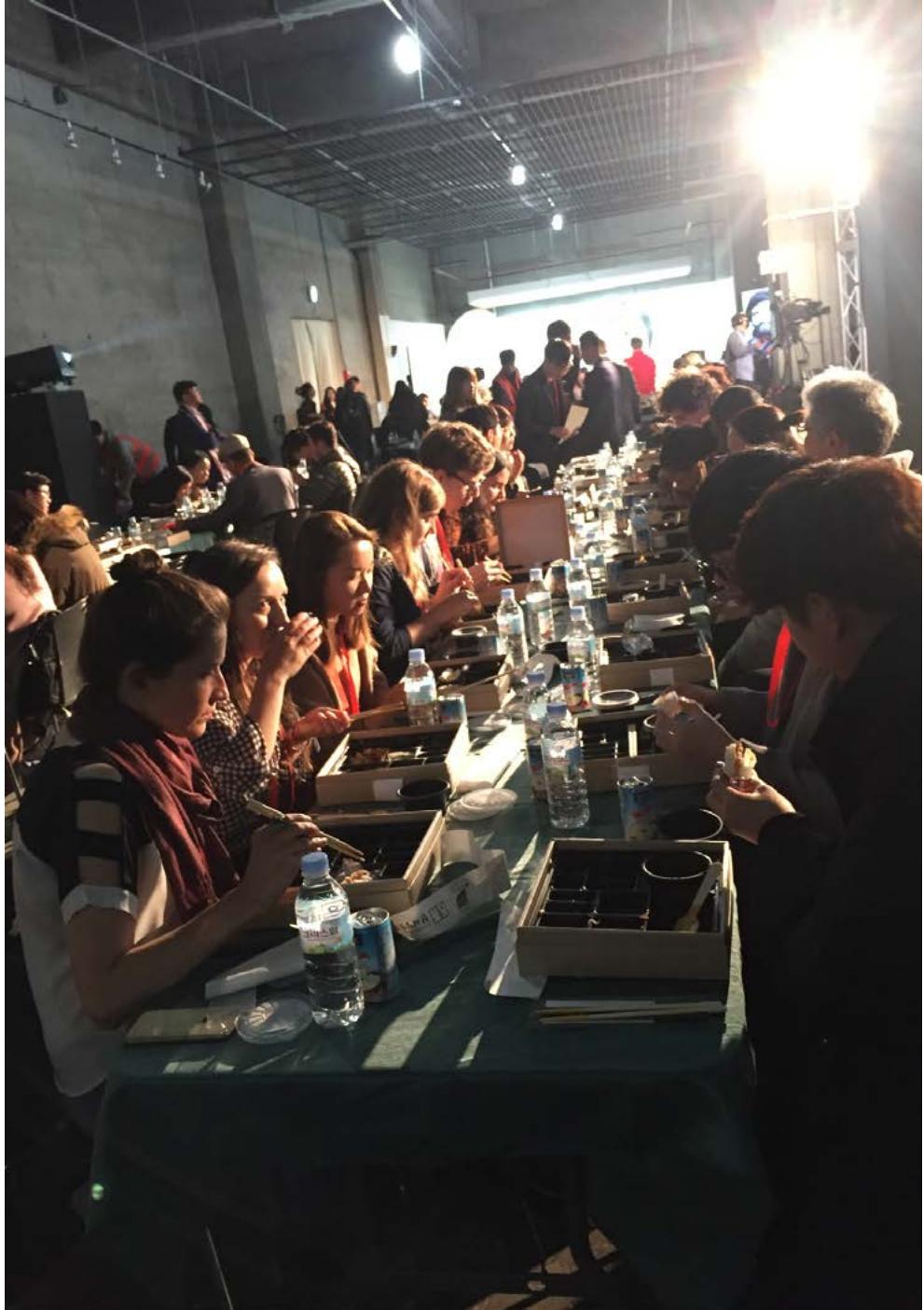
46



47







C!talk Global

C!talk 글로벌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8人 각자의 키워드로 풀어낸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

'Better Together'를 위한 글로벌 리더들의 지혜 나눔 토크콘서트, C!talk 글로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공감의 시대이다',
'오늘날 지구촌에 공감과 평화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공감이 왜 중요할까? 어떻게 더 공감을 잘 할 수 있을까?

지구촌에 공감의 문화가 정말 필요한 이유와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나누기 위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8명이 모였습니다.
8명의 연사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시각으로
'공감과 평화'의 의미를 조명하고 지혜와 통찰을 공유하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의 장^場을 이틀간 펼쳤습니다.

11.11^토, 12^일 14:00-16:00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속에서 나를 보다

장 폴 삼푸투 르완다 | 르완다 대학살의 아픔을 예술을 통해 치유하는 월드뮤지션

르완다 대학살의 아픔을 예술을 통해 치유하는 월드뮤지션 장 폴 삼푸트는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인 ‘르완다 대학살’(1994)을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인종갈등이 빚은 내전의 참혹함을 들려주고, 가족을 잃고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깨달은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공유하여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석 달여 동안 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삼푸트는 부모와 동생들을 잃었죠. 그의 가족을 살해한 사람은 다름아닌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충격으로 술과 마약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던 그는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다.”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건, ‘용서’를 하고 난 뒤부터였다고 합니다. 삼푸트는 법정에 나가 가해자인 친구를 용서한다고 말했고, 그를 옳아맨 증오와 갑갑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온전히 나를 위한 일이었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용서의 문화가 결국 폭력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용서와 평화의 미래를 물려주겠다는 희망을 품고, 지금도 전세계를 다니며 ‘용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적인 세계관: 지구촌의 위기를 지구촌 의식 성숙의 기회로

주드 커리반 영국 | 과학과 영성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우주학자이자 미래학자

과학과 영성을 통합적으로 사유하는 우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영국의 주드 커리반은 ‘통합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구촌 문제와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레딩 대학에서 양자물리학과 고대 우주론에 대한 연구로 고고학 박사를 수료한 우주학자이자 미래학자 주드 커리반은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우주과학과 사람의 마음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녀는 우주와 에너지, 우리라는 존재 그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과학의 산물 테크놀로지 역시 결국은 우리의 마음, 의견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것이지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며 행동하는지, 그 하나하나가 모두 세상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현대과학과 고대의 지혜를 연결하는 통합 세계관으로 인류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가는 지혜를 역설한 그녀는 인공지능 시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적 가치임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명상이 필요한 이유: 공감력을 키워주는 명상

핑핑 워라카테 태국 | 월드피스이니셔티브 재단 창설자 World Peace Initiative Foundation

태국에서 온 펑핑 워라카테는 ‘공감력을 키워주는 명상’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평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월드피스이니셔티브재단World Peace Initiative Foundation’ 창설자이기도 한 그녀는 사회의 한 구성원인 우리 각자의 내적 평화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나아가 세계 전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음Peace In, Peace Out을 강조하며, 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명상법과 그것의 시너지 효과로서 뒤따르는 공동체의 평화에 대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6살에 명상을 시작했다는 그녀는 명상이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도구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분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명상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능력과 자질을 기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포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조금씩 공감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답죠.”

이 다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돋는 명상과 평화 운동가 펑핑 워라카테의 메시지는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건강한 도시문화, 도시공동체 만들기

엠마뉴엘 벤비히 프랑스 | Cities of Love 창설자이자 영화제작자

영화 <사랑해, 파리>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프랑스 영화감독 엠마뉴엘 벤비히는 Cities of Love 영화 시리즈의 제작 스토리를 공유하며, 도시의 생명력은 공간이고 역사며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전략가로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는 미디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험과 도시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 스토리를 공유해주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도시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콘텐츠를 생성하며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현대사회는 부정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데 익숙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더 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도시만의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곧 그 도시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청주, I love you> 를 비롯해 서울, 부산 등등 많은 도시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말로 청중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DAY 2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나를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나

카디자 알살라미 예멘 |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영화제작자, 여성 및 아동인권 운동가

예멘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인 카디자 알살라미는 자신의 삶의 경험담을 관객과 공유하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어떻게 나를 공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1살에 정혼을 하게 된 이후 여성의 억압적인 삶을 극복하고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그녀의 청년 시절 이야기와 20여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통해 예멘사회에서 억압 받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알리기 위한 그녀의 활동을 담담하게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활동이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기에 가능했음을 이야기하며 ‘공감의 진정성’에 대해 전달했습니다. 또한, 억압받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여성의 문제만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해 시선이 확장되어 온 과정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서로 교감하려면 ‘배움’이 중요해요. 우리가 왜 다른지 이해하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공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와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기술

데니스홍 미국 | UCLA 로봇공학 연구소 RoMeLo 창립소장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캠퍼스^{UCLA}의 세계적 로봇공학 연구소 RoMeLa 설립자이자 소장으로, 지난 10년간 혁신적인 로봇 연구와 발명을 진행해 온 데니스 홍은 자동운행차량에 대한 연구 및 시각장애인용 차량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회의적이었던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개발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먼저 시각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단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죠. 그게 개발의 중요한 시작점이었습니다.”

데니스 홍은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다는 편견을 버리고, 시각장애인의 실제로 의사결정을 내려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개발에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인인 마크가 처음 그의 차를 타고 훌린 눈물을 회상했습니다.

“로봇공학자가 왜 이런 무대에 오를까 궁금하시죠. 저는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술은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람을 위한 기술, 누군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과학자이자 개발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나눈 그의 철학과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기술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까? 공감에 의한 타인과의 관계

기시미 이치로 일본 | <미움 받을 용기> 저자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국내 유명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 이치로는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토크를 선사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말한 그는, 사람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과 상대방 말의 표면적 의미 이면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의도를 찾아 다시 해석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가 미움을 받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미움을 살까 두려워 말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용기와 공감은 함께 가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용기를 잃지 않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는 말로 모두에게 따뜻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의 역할

데브라 시몬 미국 | 뉴욕 타임스퀘어 아트 공공미술 디렉터

뉴욕 타임스퀘어 아트 공공미술 디렉터 데브라 시몬은 ‘현대 도시에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는 공공미술의 역할’에 대해 연설하였습니다. 무용수 출신으로 25년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워싱턴 등 대도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담당해왔던 데브라 시몬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 광장인 뉴욕 타임스퀘어를 무대로 전세계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및 문화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와 세상을 향한 혁신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를 문화예술이라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과 예술이라는 것이 더 이상 박물관, 혹은 미술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력의 가치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있는 이곳, 청주 옛 연초제조창은 그야말로 국보급인 장소라고 느껴집니다.
옛 역사와 흔적을 품에 안고, 시민의 힘으로 이곳을 새로운 문화창고이자 보물창고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공공예술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주요 이슈를 다루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작품을 보고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겠지요.”

결국 문화가 어떤 메시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것이고, 공감과 연민을 끌어내
마침내 행동하게 만들 거라는 그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던져주었습니다.



연사와의 대화

연사와 청중이 더 가까이 만나 교감한 시간

8人の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토크 후에는 각 연사 별로 약 40분씩
관객과 질의 응답하는 ‘연사와의 대화’ 시간이 이어집니다.

연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자리한 청중들은 C!talk 강연에서
연사들이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문과 자신의 생각을 주고 받으며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열정 어린 질문들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연사들 모두 질문의 의도를 재확인하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를
재차 묻는 등 진지한 자세로 관객과의 소통했습니다.

‘공감과 평화’에 대한 글로벌 컬처디자이너 8인의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토크를 넘어,
관객과 연사가 서로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나누며 ‘공감’을 싹 틔우는
C!talk Global 토크콘서트였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Debra Simon, Dennis Hong, Emmanuel Benbihy, Ichiro Kishimi, Jean Paul Samputu, Jude Curriyan, Ping Ping Worakate, Khadija al-Salami

연사소개



장 폴 삼푸투 *Jean Paul Sampatu* | 르완다

장 폴 삼푸투는 르완다의 싱어송라이터 뮤지션으로, ‘아프리카의 그래미’로 불리는 코라 어워드를 비롯하여 다수의 유수의 국제 뮤직 어워드를 수상하고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 중 하나다. 르완다의 문화대사로서 세계를 다니며 아프리카의 음악, 노래, 춤과 문화를 알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인류의 희망으로 생각하며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삼푸투는 비극적인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생존자이기도 하다. 르완다의 다수민족인 후투족이 소수민족인 투치족을 참혹하게 집단학살 한 100일 동안 무려 르완다 인구의 20%에 달하는 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삼푸투는 가족을 모두 잃게 된다. 그의 부모와 여동생, 남동생들을 살해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까지, 오랫동안 분노와 상처의 시간을 보냈던 그는 이제 용서와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래하고 이야기한다. 그의 가족을 죽였던 가해자를 마음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그는 진정한 용서의 메신저이다.



주드 커리반 *Jude Curriyan* | 영국

주드 커리반 박사는 우주학자, 미래학자이자 작가이며, 첨단 과학연구를 보편적 의식사고와 연결하여 보다 통합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이러한 통합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문제들에 접근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레딩 대학에서 고대 우주론에 대한 연구로 고고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우주학과 양자물리학을 전공했다. 여섯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한 커리반 박사의 책 <코스모스 CosMOS>는 1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5개국에서 발간되었다.



핑핑 워라카테 Ping Ping Worakate | 태국

핑핑 워라카테는 평화혁명 프로젝트의 디렉터이자 태국과 영국에 설립된 월드피스 이니셔티브재단의 공동 창설자이다. 사람들에게 인종, 국적, 종교를 넘어 엠파워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그녀는 홍보,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및 미디어 제작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와 워크숍에 초청되어 강연하고 있다. 월드피스이니셔티브는 120여개국의 자원봉사자와 40개국의 트레이너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 ‘하루 하나의 생각, 하루 한 명씩’이라는 모토로, 내적 평화를 훈련하며 자기개발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엠마뉴엘 벤비히 Emmanuel Benbihy | 프랑스

엠마뉴엘 벤비히는 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에 ‘자신의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의 비영리 글로벌 이니셔티브 Cities of Love Global을 설립한 사회적 기업가이자 영화감독이다. 2006 칸느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파리, 쥬Democrats^{Paris, je t'aime}>를 비롯하여 <뉴욕, 아이 러브 유>, <리우, 테 아모>는 제작자이자 미디어 전략가로서 20년간의 경험과 통찰력을 담아낸 작품들이며, 베를린, 로테르담, 맬모, 쿠알라룸푸르, 상하이에서도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오늘날 The Cities of Love Global은 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끊임없는 활동과 콘텐츠를 생성하고, 긍정적인 미디어환경을 만들어내고, 지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게 하고 있다. 엠마뉴엘은 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의 부상과 세계의 미디어 흐름을 바꾸는 중국의 역할을 예측하며 현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카디자 알살라미 *Khadija al-Salami* | 예멘

11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결정한 정혼을 하게 된 카디자 알살라미는 중동 문화권에서 여성에 받는 억압을 벗어나기 위해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며 주경야독한다. 결국 16세에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학생이 되어 영화를 공부하게 된다. 카디자는 2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상 수상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예멘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기도 하다. 카디자는 영화를 통해 예멘사회에서 억압 받는 여성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진다. 예멘에서의 어린 시절 경험을 자전적으로 담아 <셰바의 눈물>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주프랑스 예멘 대사관에서 문화 및 언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와 예멘의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로를 인정 받아 자크 시라크 대통령으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Legion d'honneur}을 수여 받았다. 그 외에도 프랑스 문화장관 프레데릭 미테랑 수여하는 문예상, 워싱턴 D.C.의 모자이크 재단이 수여하는 영감을 주는 여성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으며, 카디자 알살라미는 2012년과 2013년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여성 100인, 중동의 문화를 만든 사람들 50인 등에 선정된 바 있다.



데니스홍 *Dennis Hong*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캠퍼스^{UCLA}의 세계적 로봇공학 연구소 RoMeLa 창립 소장이자 교수로, 지난 10년간 혁신적인 로봇 관련 연구와 발명을 진행해왔다. 주 연구분야는 로봇 운동 기계학,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이며, 대표적으로 자동운행차량에 대한 선구자적 초창기 연구를 비롯해,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용 차량,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재난 복구용 기동 로봇, 3개의 다리로 걷는 독특한 스트라이더 로봇, 공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로봇손 라피엘 등을 연구 발명했다. 그의 연구는 유수 국제 미디어의 조명을 받았으며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그를 ‘로봇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소개하기도 했다.

데니스 홍박사는 미국 전역의 40세 이하 과학자 중에서 선정되는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에 뽑혔으며, 내셔널 사이언스 재단의 CAREER 상, SAE International’s Ralph R. Teeter 교육상, ASME Freudenstein / GM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양한 로봇디자인 대회에 출전해 Darpa Urban Challenge, 국제 자율로봇축구대회인 RoboCup 휴머노이드 부문, 루이비통컵에서는 베스트 휴머노이드 상 등을 수상했다.

위스콘신-메디슨에서 기계공학 학사, 퍼듀 대학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를 수료했으며, 미식 요리가이자 매지션으로 매년 마술 자선 공연과 ‘마술의 과학’ 강연을 진행한다.



기시미 이치로 *Kishimi Ichiro* | 일본

1956년 교토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교토에 살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철학에 뜻을 두었고, 대학교 진학 후에는 은사의 자택에 문턱이 높도록 드나들며 논쟁을 벌였다. 교토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만기퇴학을 했다. 전공은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 철학 등 서양고대철학 및 ‘아들러 심리학’을 연구했다. 아들러 심리학과 고대철학에 관해 왕성하게 집필 및 강연 활동을 펼쳤고, 정신의학병원 등에서 수많은 청년을 상대로 카운슬링을 했다.

일본아들러심리학회가 인정한 카운슬러이자 고문이다. 한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아들러 심리학의 새로운 고전이 된 <미움받을 용기> 출간 후에는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많은 청년들을 상대로 보다 활발하게 강연 및 상담 활동을 하고 있다.



데브라 시몬 *Debra Simon* | 미국

타임스퀘어 공공아트 디렉터인 데브라 시몬은 세계의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며 타임스퀘어 광장의 설치미술과 퍼포먼스 아트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다. 데브라 시몬이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타임스퀘어 아트 얼라이언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공공아트 플랫폼으로, 매일 30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 광장인 뉴욕 타임스퀘어를 무대로 전세계 컨템퍼러리 아티스트 및 문화기관들과 협업을 한다.

공공 공간과 민간 공간, 아티스트의 꿈과 무모한 시도 사이에서 절묘한 접점과 균형을 찾아내는 ‘타임스퀘어의 연금술사’라는 평가를 받는 데브라 시몬은,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과 광장, 빈 공간들과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대중 시민들이 타임스퀘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오픈보이스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향한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교류하는 열린 토론회, 오픈보이스.

어떻게 하면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전세계 다양한 지역, 환경, 분야에서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해 노력하는 공익활동가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기 위한 생각을 교류하는 열린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픈보이스는 주어진 주제에 대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이 아닌 토론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참여자 전원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열린 토론으로서, 월드컬처오픈의 그룹토론 플랫폼입니다.

이번 세계문화대회 BetterTogether2017에서는 ‘공감과 평화의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국내·외 컬처디자이너들이 지역, 문화권, 전문분야 등 다양하게 섞인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이를 동안 총 2회에 걸쳐 오픈보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공감 능력과 협업 마인드를 실천하는 방법은?

- 어떻게 하면 Better Together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활동가, 공익적 실천가들이 더 열정적, 자발적,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주제로 양일간 진행된 오픈보이스를 통해 컬처디자이너들은 ‘공감과 협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 사회에 공감과 협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법 및 공감과 협업 문화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을 고심했습니다.

Better Together 2017의 오픈보이스를 통해 모아진 모든 목소리는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공유되며, 행사 이후에도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누구나 오픈보이스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감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 나눔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1.11^토, 12^일 10:00-12:00

함께 만든 사람들: Aaron Yang Shuo, Bikzad Abdullah, Faozia Moqbel, Ilanit Adar, Jasmine Chin, Kat Chamberlain, Lily Xu, Lucia Wang, Munair Simpson, Natasha Sim, Sarah Jinhee, Wendy Wilson, 김다은, 김승희, 김충식, 안성민, 이보미, 이슬기, 이영주, 이원빈, 이은호, 이창민, 임재균, 차한백



DAY 1

문화로 벽을 허물다: 공감에 대한 성찰

“우리 사회에서 공감 능력과 협업 마인드를 실천하는 방법은?”

공감과 협업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익활동가 – 컬처디자이너. 하지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과 공감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왜 이렇게 분열되었는지, 오늘날 왜 공감이 중요한지, 나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확장해 지구촌의 상황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 능력과 협업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김정과 이정의 윤리	열린마음
상대방을 소중히	협업	문화 프로그램	다양성 존중
다른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기			디지털 디톡스
강요하지 않기		서두르지 않기	
마음의 여유		이해	상대방의 선의를 이해하기
겸손과 배려			
니덕내탓			
공감		다름을 인정	
자기수용			
눈을 마주치기		관심과 관찰	
잘 질문하기			
판단하지 않기			
역지사지		동심 환기시키기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타인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		공통의 경험 만들기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대화하기	칭찬하기	솔직하게 표현하기	경청
스토리텔링으로 다가가기		거점 만들기	
같이 놀기			
먼저 손 내밀기			
행동하기			
같등 교육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			
자신의 목소리를 정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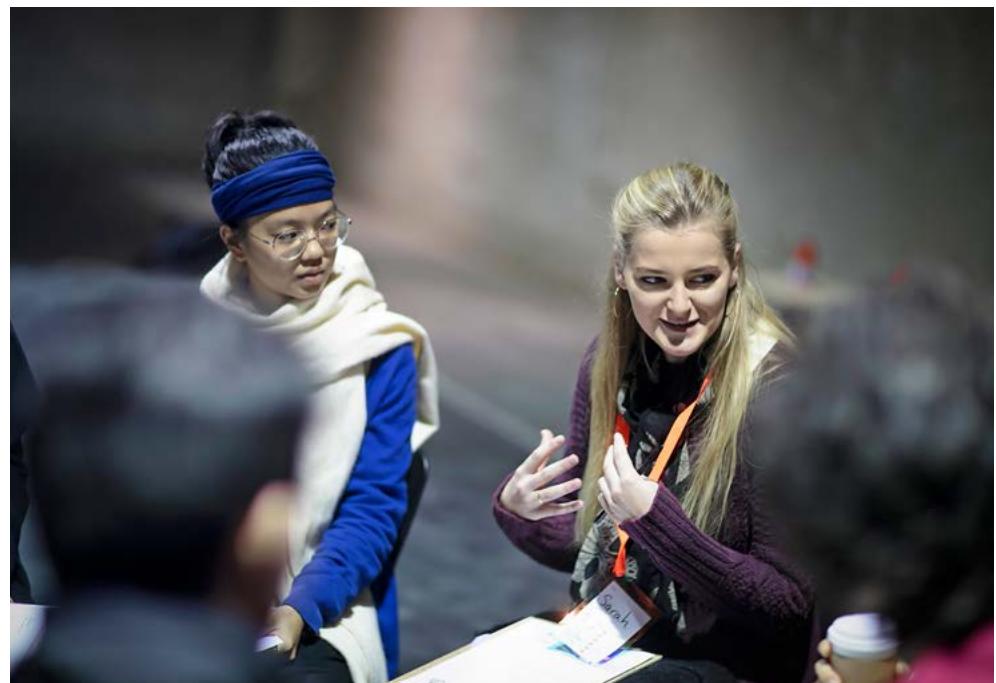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기 •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 • 공감과 인정 • 먼저 인정한 뒤에 뭐든 하기 • 작은 이야기로 공감을 만들자 • 편견을 없앨 수 있는 작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기 • ‘공감도미노’(아름다운 협업) 만들어가기 • 상대방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이해와 관심, 배려가 필요 • 다른 영역과의 클라보를 통한 이해 •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감연대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가는 일 • 내가 맘껏 나이듯 네가 맘껏 너로 있을 수 있는 문화 만들기 • 상대를 자신의 틀에 얹지로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 • 소통 communication • 독도 스토리, 한일간의 평화에 대해 교육하는 방법 • 공감과 협업을 통한 성장과 발전 • 근원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 • 상호존중과 수평적인 소통 • 자기수용 • 나의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Self-Acceptance) • 다름에 대한 인정과 다양성에 대한 인식 • 열린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 • 주위를 둘러보기 • 관심, 호기심, 소통 • 흥(공감과 소통으로 함께 놀자) •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선의를 발견하기 •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기 • 스킨십을 적극적으로 • 대화: 시간을 내어 식사를 한다 • 디지털 디톡스 • 잘 듣기: Open the mind and be a good listener • 완벽주의 내려놓기 •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 당신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 소통 • 이 세상의 수많은 ‘나’들에 대한 존중 •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 • 깊이 있게 듣기 • 상대가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잘 질문하기 •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협업 •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 스스로가 가진 편견을 깨닫고 극복하기 • ‘나마스떼’ 영혼의 공감 • 욕심 비우기 • 서두르지 않기. 천천히 설득하기 — “가랑비에 옷 적시자” • 자신의 목소리를 우선 정립하기 (내 안에 없는 것은 나눌 수 없기에) • 나누기에 앞서 알아가기 •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노력하기 • 공통의 경험의 장 만들기 • Rolling earth Action • NDNT(니덕내탓) • 겸손한 마음가짐 • 서로 칭찬하기 • 상대방의 장점 발견하기 • 나부터 행동하기 • 동심을 환기시키기 • 상대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겸손과 협업 • 강강술래 (공통된 의견, 공통된 미션) • 역지사지 • 갈등관리: 사회적 갈등뿐 아니라 내적 갈등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 맞춤 yes, 강요 no • 다른 이의 의견도 내 의견만큼 소중하다 • 쉽게 판단하려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 생각하며 이해하도록 노력하기 •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나의 생각을 말하기 • 문화프로그램과 갈등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 자신에게 말하듯 대화하기 • 귀를 열고 마음을 열자 • 인연을 소중히 • 내가 먼저 상대를 받아들이자! 상대가 받아주길 기대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르다! • 다름에 대한 경험을 배워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 배움으로 시작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 감정과 이성을 균형 있게 인지하고 표현하기 • 말의 능력 • 솔직함과 솔직함을 표현하는 용기와 기술 •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 잘 관찰하기 • 심호흡(여유) • 한걸음 물러나 바라보기! •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 • 공감의 확장과 자연스러운 협업: ‘Culture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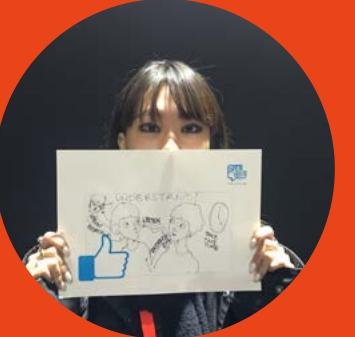












DAY 2

문화로 우리 지역을 디자인하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Better Together 커뮤니티 만들기

“어떻게 하면 Better Together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활동가, 공익적 실천가들이 더 열정적, 자발적,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Better Together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지역의 공익활동가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역과 도시를 고유한 개성을 가진 Better Together 커뮤니티로 만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Better Together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창의적 활동가, 공익적 실천가들이 더 열정적, 자발적,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개인적 차원, 커뮤니티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실제 사례들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해보았습니다

나의 관심에서 출발하기

지역 커뮤니티와의 적극적 소통

공익활동가 발굴

실패할 수 있는 권리

사회안전망 지역별 소통공간, 교류거점 만들기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결정 참여구조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정보교류와 배움 기회 확대

역량강화 기회 활동가 스스로 자존감

상시적 교류 플랫폼 지원보다 응원

교류

자생능력

대중과의 접점

문화 교육

기업가정신, 리더십 교육 자립화를 돋는 지원 토론과 협의의 장

간섭 아닌 지원 지역특성 살리기 커뮤니티 디자인

공익활동가수익창출-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문화예술 지원 증대

지속성 있는 지원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

교육

세계시민의식 지원 시스템의 단순화

공적 지원제도 적극 활용

자율·자발적 나눔과 교류

작은 실천부터

사회적경제 적극 활용 컬처디자이너 커뮤니티 활성화

제트리피케이션 규제

공익적 가치추구 문화 만들기

공익활동의 건전한 재무구조

열린 대화

일자리 창출

공익활동가들을 위한 창의적 지원과 소통의 공간이 필요 • 문화거리를 만들고 공익활동가를 발굴 •

Zen-tralization 제한 규제 •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촉진 • 세계시민의식과 문화가 중요 • 지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 • 기존 활동가, 컬처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경제적, 비경제적 지원)을 하되 간섭이 아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컬처디자이너들간의 자발적인 나눔과 교류 노력 • 기부 공간을 발굴 > 지역 내 공간기부 확산> 소통존재, 공간 내용등 전파 > 만남, 모임, 실천, 발굴과 양성, 도전정신으로 관심 갖고 함께 하자 • 갈등에서 시작하자 > 부딪혀야 결론이 난다(갈등관리) • 자율성, 자발성, 창조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 • 상시적인 교류와 모임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 네트워킹을 위한 커뮤니티 매펑 (Community-Mapping) • 의식을 환기시키고 계기를 만드는 활동 • 큰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작은 부분의 문화부터 실천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 • 작은 것이 더 중요하고 모이면 커진다 • 나의 관심을 잘 살리는 활동 •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활동들 •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 • 나부터 로컬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 문제점의 비판보다 건설적인 제안을 위해 노력하기 • 실패에 대해 관대한 문화. 활동가들에게는 실패할 기회가 필요하다 • 시스템의 단순화 • 민과 관, 활동가들간 원-원이 될 수 있는 구조 •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을 키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 • 더 깊고 적극적인 네트워킹 기회 •

네트워킹의 세분화(SNS의 다양한 활용) • 자생능력과 다른 이를 설득할 수 있는 활동의 당위성을 높이기 •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 지속적으로 연구 • 지역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지역으로 다시 순환되며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필요 • 활동가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춰야 함 • 개별 컬처디자이너 지원 확대 및 지역별 교류모임 지원 활성 • 컬처디자이너의 자립화 방안 모색과 지원 • 사회적 경제의 적극적인 활용 • 문화예술 지원 증대방안 모색 • 활동가들의 자생능력 •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 필요 • 공익활동이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전한 재무구조 필요 • 공익활동을 법인화하여 공적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 적극 활용 •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기존의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활동의 구조를 디자인 •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만들기 • 지역에도 해외 활동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구조 및 의식수준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 • 사회혁신에 대한 대중화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 •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같이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식의 전환 필요 • 지역별 모임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광역 지역별 거점 마련 및 지원 • 교류 및 배움의 기회가 지역에도 많이 생겨나야 •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문화기획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어야 함. 특히 지역에는 그런 관심과 지원, 복지가 부족한 실정 • 지역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 • 컬처디자이너들의 커뮤니티(협업공간, 코워킹공간) 필요 • 컬처디자이너 네트워크와 사례발표 등 정보교류를 통한 역량강화

기회 증대 • 컬처디자이너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유 네트워크 개선 • 커뮤니티 활동 시 갈등상황에 대한 갈등해결 전문가들의 협력 체계 • 커뮤니티 디자인 • 기역 기반 공간 필요 • 지역 원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커뮤니티 디자인의 과정이 중요 • 다양한 국내외 활동 사례 워크숍 기회의 증대 • 사업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컨설팅&멘토링 지원 필요 • 활동 장소 부족 해결이 급선무(지원이 가능한 대부분의 장소들은 교통이 열악한 곳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움) • 컬디들의 역량 강화(기업가정신 교육 등)와 재정적 지원 등 • 컬처디자이너 리더십 교육과 모임 필요 • 컬처디자이너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시, 정기적 소모임과 워크숍이 필요 • 함께하는 나눔이 더 많아져야 함 • 이해와 소통. 열린 대화의 문화가 필요 •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인내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함 • ‘권리보호막’ ‘사회안전망’ 필요 • 활동가의 네트워킹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음 • 단계별로 잘 설계된 네트워킹 • 단순한 연결을 넘어선 네트워킹 필요 • 발굴과 양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위계적, 경직된 수직구조로 느껴질 수 있어 ‘지원, 서포트’ 등의 표현으로 순화되어야 • 관심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간섭은 자양해야 • 공감을 넘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활동 내용과 계획이 되어야 함 • 활동가 자신이 중심을 가지고 행복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어야 • 지원보다는 응원이 더 중요 • 자리만 만들어주는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진심 어린 응원이 필요 • 활동가는 지치지 말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중요 • 활동가 스스로 지치지 않게 자신을 지지하기 • 공익 활동가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 장치(사회보장) 필요 • 일반인들이 쉽게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컬처디자이너를 소개 및 연결할수 있는 채널이 필요 (통합 웹사이트 등) • 활동가 자신이 먼저 보상과 지원을 기대하는 마음보다 대가 없는 베풀의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 • 공익적인 순수함이 서로 만날 때 진짜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 지역 유치들의 관심과 후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 친목 모임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성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노력이 중요 • 컬처디자이너 네트워크와 Better Together 운동 확산 • 공익 운동이 일상에 스며들고 발전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역별로 확산 • 정부와 지역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과 예산 증가시키는 암이 마련되어야 • 활동가들이 문화정책 요구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 필요 • 컬처디자이너들의 상시 네트워크 기회









Abigail Cap

Use every interaction
as potential
for
understanding



Culture Designers Fair & School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살아 움직이는 교류 속에 깊어지는 배움,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은 컬처디자이너에게는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시의 장이자, 대중에겐 컬처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활동 스토리와 다양한 공익적 라이프스타일을 보고, 듣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배움의 장입니다.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에서는 함께한 국내외 컬처디자이너 중 약 150여명이 자신의 활동을 공유하며 2박3일 동안 약 14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사하였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토크, 춤·노래·캘리그래피·스포츠·도예 등 활동을 선보이는 시연, 참여자들과 호흡하며 함께 즐기는 워크숍 등 다국적, 다분야 컬처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재능과 방법으로 꾸며낸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참가한 컬처디자이너들과 청주시민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의 오감을 총족시키며 연초제조창을 다양한 교류와 배움이 벌어지는 문화의 공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컬처디자이너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무브먼트 스튜디오’에서는 국외의 예술과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워크숍(브라질 전통무예 카포에라, 서아프리카의 전통음악 젬베 등)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호응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아티스트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컬처디자이너가 함께 꾸민 ‘인클루시브 아트 갤러리’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가 자신의 다름과 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외 해외 유수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감상하고 감독과의 대화^{GV}를 나누는 시네마 상영관, 버려지는 것의 가치를 재고하는 업사이클링 활동가들이 꾸민 갤러리와 토크, 다양한 언어를 써보며 다국의 매력을 체험하는 캘리그래피 갤러리, 공간나눔을 통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실현해가는 이들이 꾸민 공간나눔 갤러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대중과 공유하는 시대의 개발자 메이커스^{MAKERS}들이 꾸민 메이커스 스페이스 등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펼쳐진 풍성한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이 Better Together를 실천하는 그들의 삶과 활동을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월드컬처오픈에서는 다양한 민·관 파트너들과 함께 ‘Better Together’를 모토로 하는 교류와 배움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창의적인 마인드의 인재,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발굴되고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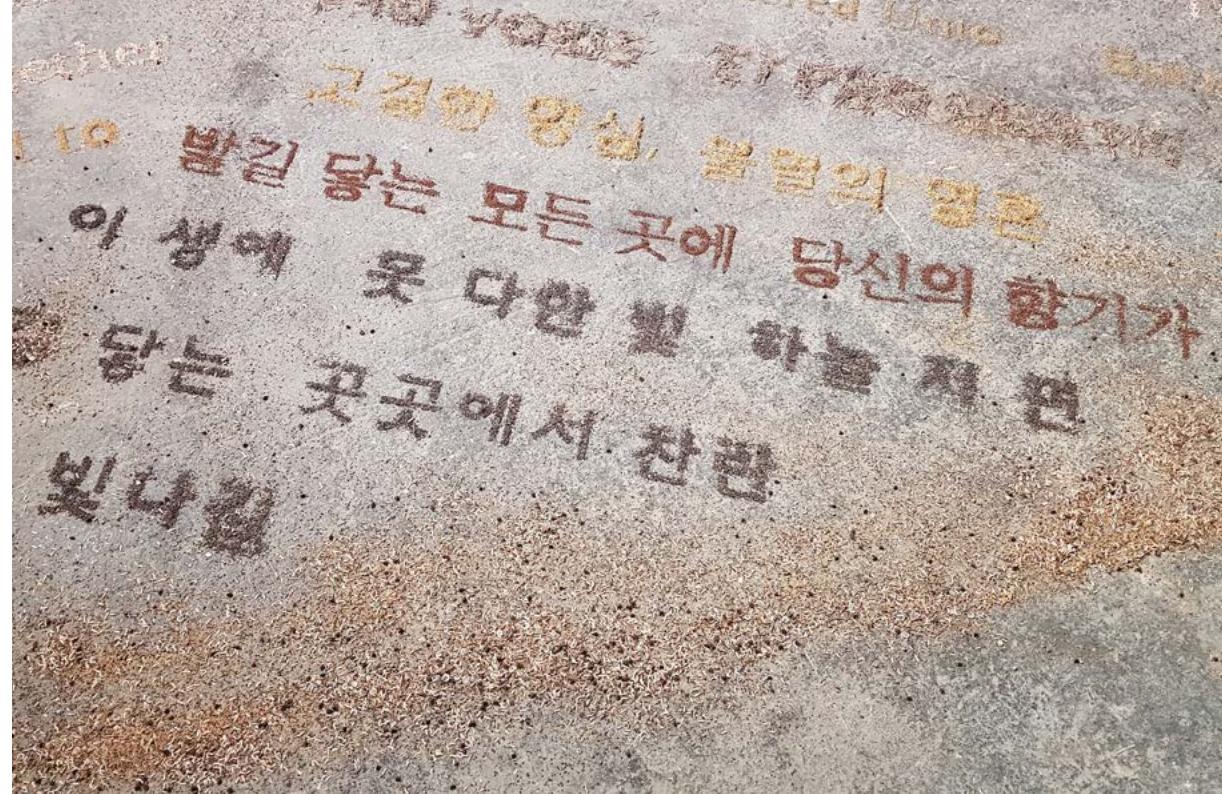
11.10금-12일 13:00-18:00

함께 만든 사람들: Afef Bourguiba, Al-Fergani, Ariff Ariffin Hew, Bikzad Abdullah, Blanca Madrigal, Charlotte Smith, Cholpon Zhunusova, Debra Simon, Dennis Hong, Emmanuel Benbihy, Fatimaah J Menefee, Gal Matoki, Gwen Yi Wong, Hans Galliker, Hole in the Wall, HOLSTEE, Huda Ali Al-Naib, Ichiro Kishimi, Ilanit Adar, Jean Paul Sampatu, Jessica Min Paik, Jude Curriwan, Julian Fisher, Khadija al-Salam, Manav Mehta, Nada Dhaouadi, Patrick G. Lee, Ping Ping Worakate, Raja Shabir Khan, Ramona Diaz, Sardor Gaziev, Seongwook Choo, Sharon Landon, Shinji Ochiai, Suren, Takahashi Sumiyo, Tiffany Pattinson, Wahab Agha, Zumbi Munair, 강병진, 강일천, 구은정, 권미루, 김광일, 김민지, 김사성, 김서현, 김시은, 김연설, 김영민, 김영환, 김예슬, 김예원, 김정희, 김종칠, 김주영, 김준표, 김지현, 김진규, 김진아, 김태진, 김하영, 김형희, 김혜윤, 김호영, 김홍선, 김효정, 남현경, 노석웅, 라온범, 류종찬, 문승태, 문호영, 민병동, 박대희, 박무진, 박상훈, 박석영, 박성준, 박수정, 박수훈, 박영순, 박완희, 박요셉, 박용수, 박주희, 박준미, 박지영, 박지현, 박태현, 박한아, 박한울, 박혜성, 백시영, 성수아, 손순옥, 손연우, 손지은, 송성진, 송재봉, 신보섭, 신안수, 신윤예, 안다비, 안병호, 양은정, 엄수정, 엄우환, 오혜자, 유재홍, 유정현, 윤이나, 이동원, 이동현, 이미령, 이민규, 이상호, 이성동, 이성철, 이소현, 이수인, 이승호, 이영용, 이우주, 이유준, 이윰, 이인수, 이전진, 이종국, 이준서, 이지현, 이철, 임자함, 임재건, 장첩, 장한나, 전찬호, 정원일, 정은영, 정은혜, 조경민, 조승주, 주승욱, 지형태, 천아영, 최석원, 최성문, 최은주, 최일섭, 최천, 최현준, 추우진, 편해문, 하광태, 한정아, 허수연



Zone 1

메시지 가든



[설치전시] Flower Garden | 구은정

구은정 컬처디자이너는 들꽃의 씨앗들로 하나의 작품을 선사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쓴 글도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며 쓴 글도 있습니다. 관람객에겐 작품 전체를 감상한 뒤 마음에 드는 단어, 혹은 글귀의 씨앗을 봉투에 담아가도록 했습니다. 씨앗으로 만든 작품에는 희망이 담겨있습니다. 없어지는 씨앗은 작품의 훼손이 아닌 희망의 나눔이라 생각하기에 행복하다 말합니다.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에서 뿌려진 씨앗이 서로 다른 사람에 의해, 각기 다른 곳에서 희망을 전달하며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Zone 2

팩토리 라운지



[캠페인] Culture Has No Walls ‘문화로 벽을 허물다’ 핸드프린팅 이벤트

활짝 편 손은 동서고금을 통해 많은 문화권에서 평화와 수용, 열림과 관용의 상징이었습니다. ‘문화로 벽을 허물다’는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벽에 닿는 순간 서로의 마음을 가로막던 편견과 갈등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캠페인 이벤트입니다. 손바닥에 컬러풀한 물감을 묻혀 벽에 꾹 누르는 순간 잠시라도 순수한 중심으로 돌아가 편견 없는 어린아이처럼 활짝 열린 마음을 경험했기를 희망합니다.

[참여형 아트 콜라보레이션] IMAGINE 라이브드로잉 | Hole in the Wall

휑했던 하얀 벽면이 알록달록하게 물들었습니다. 과거의 담배공장이 미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그린 그림은 자유롭고 컬러풀했습니다. 행사장 초입에 위치한 넓은 벽면에 연초제조창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려낸 IMAGINE 벽화 프로젝트는, 북경에서 온 Jinna 와 Shui의 라이브 드로잉으로 진행되어 72시간 동안 행사를 찾은 수많은 관객,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완성되었습니다. 벽화 작업이 진행될수록 점점 오색찬란해지는 연초제조창의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SHARE YOUR VOICE WITH US.

What is one action I can take
to foster a culture of empathy and peace?



[캠페인] Open Voice Wall 오픈보이스: “당신의 목소리를 나눠주세요”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방법, 공감과 평화에 대한 나만의 단상 등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한 각자의 스토리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Open Voice Wall입니다. 새하얀 도화지 같은 흰 벽에 한 사람, 두 사람의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가 채워집니다. 글, 그림, 형용문자 등 표현방법도 다양하고 언어 또한 다양합니다. Open Voice Wall에 채워진 각자의 공감과 평화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디어 월 Wall]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청주의 옛 담배공장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면 좋을까요? 단순한 질문 하나에 수많은 아이디어가 쌓였습니다. 아이의 시선부터 어른의 지혜까지, 아이디어 월 Idea Wall에 반영된 남녀노소의 각양각색 생각은 옛 연초제조장의 찬란한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Zone 3

캘리 그래피



11.10금

17:00-18:00 [시연] 마음의 글씨 | 박수훈

붓을 든 지 40여 년이 된 서예가, 박수훈 작가는 '서예가는 한결같은 열정으로, 때로는 비울 줄 아는 자세로 붓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족자와 색지 종이에 '나의 이름, 소망, 공감'을 키워드로 정성스레 글씨로 적어 현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다하여, 혹은 마음을 비우며 써 내려간 박수훈 컬처디자이너의 글씨가 서예의 매력을 전달했기를 희망합니다.

17:30-18:00 [체험] 후다와 빅자드가 아랍어로 써주는 나의 이름 & 서예가 10인이 써주는 나의 이름

먼 나라 시리아에서 온 후다와 빅자드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이름을 써주며 시리아가 처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사진으로 보여줬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대해 알게 되어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다와 빅자드가 써주는 이름엔 많은 소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1.11 토

13:00-14:00 [워크숍] 중국인의 복福, 그 역사와 문화 | Suren

행복을 의미하는 한자 복 福. 福이라는 글자의 구조, 의미와 역사를 통해 복을 기원하는 중국의 문화를 알아봅니다. 각국 언어로 Happiness 행복의 표현과 의미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강희제 등 福을 형상화한 유명한 중국의 서예작품들을 감상한 뒤, 참가자가 각자 자신의 글씨로 福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16:00-17:00 [토크&퍼포먼스] 별거지같은평화, 별거있나손글씨 | 허수연

캘리그래피는 마음을 치유하는 글씨입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쓰는 글씨는 별거 없는 듯 하지만 그 자체로도 따뜻함을 갖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손글씨를 쓰며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 한글의 매력, 그리고 마음을 달래는 한 문장의 힘에 대한 허수연 컬처디자이너의 토크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과 말의 힘’으로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16:00-18:00 [시연] 캘리그래피 시연 | 김사성

16:00-18:00 [시연] 내 손안의 작은 붉은 마음을 새기다 | 하광태

전통을 이끌어 현대와 소통하는 예술가입니다. ‘전각’이란 한자의 여러 서체 중 조형성과 위엄성을 내포한 전서를 이용하여 서예와 조각의 기법으로 인장을 새기는 예술로써, 나라의 인장인 국새부터 개인 인감도장까지 영역과 쓰임이 다양하며 예술성이 뛰어난 조형언어입니다.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산물인 ‘전각’의 매력을 전합니다.

11.12 일

13:00-15:00 [시연] 문자에 향기를 불어넣다 | 이동원

法古而知變 創新而能典: 옛 법을 통해 변모할 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안해 내면서도 근거가 있는 서예술을 공유합니다.

16:00-18:00 [시연] 씨앗글 | 김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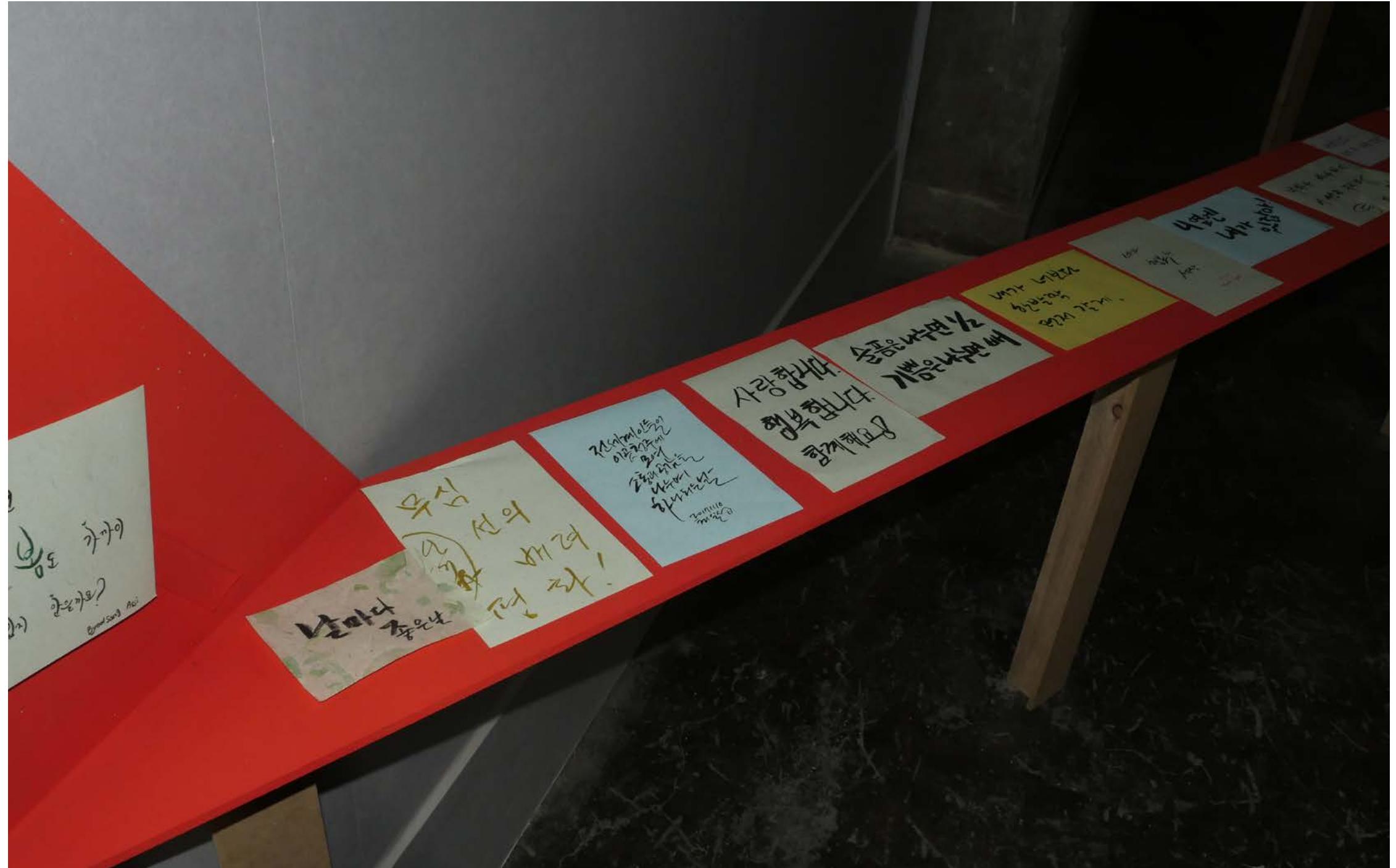
‘평화’는 거짓 없고 강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굳건하고 읊 곡은 마음으로 ‘평화’에 대한 글씨를 써보려 합니다. 글씨에 염원을 담아 평화로움의 씨앗을 피우려합니다.

16:00-17:00 [토크] 캘리그래피는 마음이다 | 최일섭

대붓과 화선지로 자신을 표현하는 최일섭 컬처디자이너는 마음을 담은 글씨를 쓰는 캘리그래퍼입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누구의 글씨도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과 마음을 글씨로 담아내고, ‘손글씨’라는 의미 있는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전합니다.

17:00-18:00 [체험] 후다와 빅자드가 아랍어로 써주는 나의 이름 & 서예가 10인이 써주는 나의 이름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Zone 4

미디어 아트

[미디어아트 특별전] YOUR FRAME | 박성준

전쟁과 불신에 대한 메시지를 데이터베이스화된 이미지와 사운드를 통해 전하고 관람자가 직접 그 시공간에 놓여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인터랙티브 ^{interactive} 미디어 아트입니다. 작품은 같은 대상을 보고도 서로 상반된 시선을 갖게 되는 인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에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평화에 관한 메시지를 역설합니다.



Zone 5

시네마 하우스

11.10금

15:30-16:00 [영화상영] **The Bronze Man of Sheba** 26min | 카디자 알살라미 Khadija al-Salami

루브르 박물관에 복원된 3000년 전 예멘의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16:00-17:00 [영화상영] **Cities of Love** | 엠마뉴엘 벤비히 Emmanuel Benbihy

<Cities of Love>는 세계 주요 대도시를 배경으로 사랑의 보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 시리즈입니다. 2006년 <파리, 쥬템므>, 2009년 <뉴욕, 아이러브유>, 2014년 <리우, 떼아모> 등 현재까지 3편이 만들어져 많은 반향을 일으켰으며, 현재 상해, 예루살렘, 베니스, 델리, 마르세이유, 베를린, 뉴올리언스 편이 제작 혹은 제작 기획 중입니다. 각 나라의 다른 감독들이 만드는 영화의 에피소드는 오늘 이 시대의 희망적 사랑 이야기, 시각적으로 특징적인 도시의 모습 등을 주요 요소로 담고 있습니다.

17:00-18:00 [영화상영] **Line of Control** 62min | 라자 샤피르 칸 Raja Shabir Khan

남한과 북한 사이에 DMZ가 있다면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라인오브콘트롤/Line of Control(LoC)이 있습니다. <라인 오브 콘트롤>은 카슈미르 지역 분단의 아픔을 그린 영화로, 90년대 초반 인도 쪽 케란 마을에 살고 주민들의 90퍼센트가 경계를 넘어 파키스탄 쪽 카슈미르 지역으로 이주한 역사적 배경에서 LoC를 경계에 두고 만날 수 없어 서로를 그리워 하며 사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11.11토

12:30-13:30 [영화상영] **Line of Control** 62min | 라자 샤피르 칸 Raja Shabir Khan

13:30-14:00 [토크] 감독과의 대화 with 라자 샤피르 칸 Raja Shabir Khan

15:30-16:00 [영화상영] **The Bronze Man of Sheba** 26min | 카디자 알살라미 Khadija al-Salami

16:00-17:00 [토크] 감독과의 대화 with 카디자 알살라미 Khadija al-Salami

17:00-18:30 [영화상영] **Motherland** | 라모나 디아즈 Ramona Diaz

지구에서 가장 바쁜 산부인과 병원이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이 병원의 모습을 관찰자의 시선에서 담아 영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낯선 느낌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이내 굉장히 친숙한 느낌으로 몰입하게 합니다.

11.12일

15:30-16:30 [영화상영] **Cities of Love** | 엠마뉴엘 벤비히 Emmanuel Benbihy

16:30-17:30 [토크] 감독과의 대화 with 엠마뉴엘 벤비히 Emmanuel Benbihy



Zone 6

W 스테이지

11.11토

13:00-14:00 [토크] 함께 살자 생이(새) 친구 | 김예원 제주과학고

김예원 컬처디자이너는 생태계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상 유토피아를 꿈꾸는 제주 소녀입니다. ‘함께 살자 생이(새)친구’ 활동은 제주의 허파 곶자왈에서 사는 새들과 교감하고, 새들의 삶의 터전인 ‘자연’ 그 자체를 존중하려 하는 것입니다. 무심히 지나치는 동식물의 생태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며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모두가 아끼고 화합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5:30-16:00 [토크&체험] 헬로, 튀니지! Eat. Play. Love. |

Nada Dhaouadi and Afef Bourguiba CCAB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났습니다. 연초제조창 한 켠, 낯설지만 웬지 낯익은 지중해 연안의 색채가 피어났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고대 지중해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나라.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고 풍부한 건축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튀니지의 음식과 노래, 춤을 경험하며 튀니지에 문화에 빠져듭니다.

16:00-16:30 [영화상영] Unspoken: Asian Americans on Coming Out to Immigrant Parents | Patrick G. Lee

성정체성을 고민하다 커밍아웃하는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자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는 영화

16:30-17:00 [토크] 디자인으로 멋있게 좋은 일 하기 | Sofya Khachatryan ONEArmenia

아르메니아의 NGO인 ONEArmenia의 아트 디렉터 소피야 카차트리안이, 어떻게 하면 디자인과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비영리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에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17:00-17:30 [토크]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 박완희

박완희 컬처디자이너는 인간과 두꺼비가 함께 살아가는 청주의 두꺼비마을을 만들어가는 생태환경운동가입니다. 물과 땅에서 모두 생활하며 피부로 호흡하는 동물인 두꺼비가 살 수 있는 곳이 인간 또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한 그의 토크에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바라는 진심이 담겨있습니다.

17:30-18:00 [토크] 우즈베키스탄의 문화의 예술 산책 Art and culture tour to Uzbekistan |

Sardor Gaziiev OXUS Culture LLC

고대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전통과 현대 예술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11.12일

13:00-13:30 [토크] 관점: 다른을 포용하고 공통분모 찾기 | Blanca Madrigal

블랑카는 여러 나라와 문화에서 일하고 여행하며 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함께 나눠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13:30-14:00 [토크] 자연을 담다: 중국 전통 민속 직물의 패턴 뒤에 숨겨진 이야기 |

Tiffany Pattinson

15:30- 16:00 [토크] 스펙 아닌 자신만의 '스토리펙' | 이창민 SNS작가

이창민 컬처디자이너는 국내 1호 SNS 작가로서 4년간 6,800명과 소통하면서 경험한 가치와 단순한 스펙이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펙'의 중요성을 전합니다.

16:00-16:30 [토크] 예술뛰내 아리랑 | 조송주 드로잉하우스

십여 년 전 마을(안텃벌)로 스민 예술가들의 이름 '동네예술가'. 그들의 문화서식처 'Drawing house', 그리고 13년이 흘러서야 부르는 노래 '예술뛰내 아리랑'. 그 오래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6:30- 17:00 [토크] 서로의 소리 | 박용수

행복한 소리를 나누는 오디오 아티스트, 박용수 컬처디자이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리가 전하는 아름다운 감각을 공유했습니다. 서로 다른 재료(도자기, 옹기, 토기, 종이, 양철, 나무, 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는 다양한 소리를 함께 듣고, 그 소리의 중첩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소리의 향연을 경험하며 우리의 일상에서 놓치는 ‘소리’의 중요성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7:00-17:30 [토크] 책으로 연결되는 상생 충북 BOOK | 송재봉

지역사회의 변화를 설계하고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NGO 활동가, 송재봉 컬처디자이너는 관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토크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독서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역의 작가와 출판사를 연결하고, 서점과 공공기관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출판’, ‘동네서점 살리기’를 키워드로 이어진 토크에는 책을 사랑하고, 지역문화를 아끼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 더욱 빛났습니다.

17:30-18:00 [토크] 역사문화 속에서 맛을 그리다 | 김정희 진지박물관

진지박물관은 음식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문화유산의 활용과 지역 문화자원의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전통 음식을 연구하는 진지박물관의 김정희 컬처디자이너는 식^食문화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토크로 밥상에 담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혜를 나눴습니다. 밥 한 그릇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담겨 있다 여기는 우리네 식문화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낸 그녀의 이야기엔 ‘음식’과 ‘사람’을 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있었습니다.



Zone 7

메인 스테이지

상설 [라이브 포토 퍼포먼스] 사진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 박상훈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매력이 담깁니다. 그렇기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컬처디자이너의 사진을 찍는 것은 참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박상훈 사진작가는 말합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2박 3일 동안 박상훈 작가는, 자신만의 열정과 이야기가 있는 컬처디자이너의 얼굴을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직접 촬영하고 전시하며, 삶의 주체로서 당당한 컬처디자이너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11.11 토

13:00-14:00 [토크] 장소를 상상한다는 것 | 조경민 서울산책

어떤 위치가 장소가 된다는 것은 그 위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이 반복적으로 쌓여 다른 곳과 구별되고, 또 그 이전과 구분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는 위치가 장소로 바뀐 결과의 산물입니다. 어떤 장소를 가진 도시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장소에 상상을 불어넣는 것, 조경민 컬처디자이너가 도시기획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16:00-16:4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장 폴 삼푸투 Jean-Paul Samputu

16:40-17:2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핑핑 워라카테 Ping Ping Worakate

17:20-18:0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주드 커리반 Jude Curriyan

11.12일

13:00-13:30 [토크] 사진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 박상훈 Sanghoon Park

박상훈 포토그래퍼는 오랜 시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을 좋아합니다.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들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열정과 행복이 가득한 다양한 표정이 있습니다. 기쁨, 슬픔, 아픔, 노여움, 환희 등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얼굴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삶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13:30-14:00 [토크] 자폐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이소현 오토스타

오토스타^{AUTISTAR}는 '자폐인의 특별한 재능 재활'이라는 뜻입니다. 오토스타의 설립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인 이소현 컬처디자이너는, 모든 사람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의 재능을 인정받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자폐인의 예술적 감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사회적 독립을 실현해가는 활동을 지속합니다. 자폐장애 작가가 그린 그림에서 특별함을 발견하여 1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대중이 좋아하는 착한 브랜드 오토스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6:00-16:4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데니스 홍 Dennis Hong

16:40-17:2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데브라 시몬 Debra Simon

17:20-18:00 [토크] C!talk 역사와의 대화 with 기시미 이치로 Kishimi Ichiro





Zone 8

공간나눔 갤러리

[인터랙티브 전시] 모노폴리? 모두풀리!

공간을 나누고 있는 국내외 여덟 팀의 컬처디자이너들의 활동을 알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전시 ‘모두풀리’입니다. 타인의 소유지를 지날 때 돈을 내야 하는 모노폴리 게임의 규칙을 뒤집은 ‘모두풀리’. 공유 공간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모두풀리’ 게임을 통해 공간 나눔의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기획: C!here,

참여공간: 써드웰 THIRDWELL, 인스클래식 INS CLASSIC, 동네줌인 Dongneezoomin, 반딧불이창작공간, 라온,
레:코드 Re_code, 스페이스K Space K, 레드룸 Red Room International Village, 큐스페이스 Q-space

[C!here/한국_중국_미국] ‘C!here’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휴 공간들을 가능한 시간만큼 기부받아 문화활동 공간이 필요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월드컬처오픈 WCO의 공간나눔운동입니다. 공간을 가진 사람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시간에 공간을 나누고,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의미 있게 잘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은 문화활동을 함께 향유함으로써 ‘공간’을 중심으로 나눔의 선순환을 확산시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드웰/전주] 써드웰은 창조와 나눔의 가치를 추구하는 창의 공간입니다. 신인 뮤지션을 위한 BGM프로젝트, 신인 또는 학생 작가를 위한 무료 전시 그리고 플리마켓 등을 통해 열정과 능력이 충분하지만, 기회가 없어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스클래식/서울] 현악기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인스클래식의 뚜띠홀은 클래식 연습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공간입니다. 뚜띠홀의 노랑지붕 기부함에 사용료 대신 기부금을 모아 지구환경보호 에코뚜띠 캠페인과 클래식 전문 음악인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네줌인/광주] ‘동네줌인’은 청년이 자신만의 이야기와 활동을 풀어내며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청년들이 눈치보지 않고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 속에 꽃 피운 그들의 열정이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청년문화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는 ‘열린 청년 공간’입니다.

[반딧불이 창작공간/부산]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딧불이 창작공간은 지역의 빈집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물론 예술인과 지역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택가에 생겨나는 예술 공간을 통해 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온/청주] 라온은 인디뮤지션의 연습을 위해 나눠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총북대 거리에 자리하여 대학생들이 음악, 미술, 연극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래:코드 나눔의 공간/서울]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도서와 영상, 국내외 작가들의 업사이클링 작품, 그리고 다양한 공방수업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직접 느끼고 체험해볼 수 있는 업사이클링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스페이스K/과천,대구] ‘스페이스K’는 (주)코오롱의 문화예술 나눔 공간입니다. 전문 문화예술인 지원과 지역민의 문화활동 기회를 연결하는 매개로써 전시 공간을 운영합니다. 예술가의 창작과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공간’을 통해 연결하며 예술사회공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Red Room International Village/타이페이] 레드룸은 다양한 예술가와 창작자의 열정을 탐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비영리 문화플랫폼을 위한 공간입니다.

[Q-space/베이징]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끌어내는 방법이라고 믿으며, 지식 공유와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진정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집중하는 퀴어, 페미니스트 메이커 공간입니다.





BITER
TOGETHER
2017

Zone 9

인클루시브 아트 갤러리

[인클루시브 아트 퍼포먼스]

장애의 ‘다름’으로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휠체어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세상, 시각장애인이 전하는 색깔 없는 세상 등 장애의 ‘다름’으로 풀어내는 ‘예술’을 경험하세요.

기획: 정원일 / 참여 아티스트: 박태현, 김형희, 오티스타

[전시] 자폐인과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오티스타

‘오티스타’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자폐인에게 무상 예술교육을 지원합니다. 자폐인은 언어와 행동 장애가 있지만, 내면의 감수성과 시각적 표현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능력을 ‘그림’이란 매개로 표출하며, 자폐인 디자이너로서 대중들과 소통할 때, 자폐인 또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향한 오티스타의 열정이 꽃 피운 자폐인 디자이너들의 특별한 그림, 사람들에겐 어떠한 울림을 선사했을까요?

[전시&라이브드로잉 퍼포먼스] 박태현의 ‘찾아가는 미술관’ | 박태현

박태현 컬처디자이너는 종이공예를 하는 발달장애인입니다. 테이프를 뜯고 붙이는 반복행위를 통해 그의 내면세계와 성장 과정을 작품에 담아냅니다. ‘나’의 세상을 표출하고픈 열망으로 시작한 종이공예가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향합니다. ‘장애를 가진 작가’로서 당당히 선보이는 라이브 테이핑 Live Taping 퍼포먼스에는 장애가 아닌, 한 개인의 열정과 재능이 녹아있습니다. Better Together 사회를 위해 장애를 가진 작가로서, 관객과 당당히 호흡하며 ‘편견’이라는 사회적 장애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캔버스에서 춤추는 화가 | 김형희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무용수에서 교통사고로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장애인 되었지만, 재활치료로 만난 그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형희 컬처디자이너. 아내, 엄마, 화가, 예술기획자, 임상미술치료사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작품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한 기법과 형태로 작가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대담하게 담아낸 작품들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 선으로 색으로 사랑으로

Zone 10

메이커스 스페이스

11.10금

17:00-18:00 [토크] 아트+테크놀로지+교육 |

Shinji Ochiai, Jess Paik, and Woogy Choo 팀랩키즈 USA, 인피니틀

예술, 테크놀로지, 교육을 융합한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창조적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팀랩키즈의 여러 프로젝트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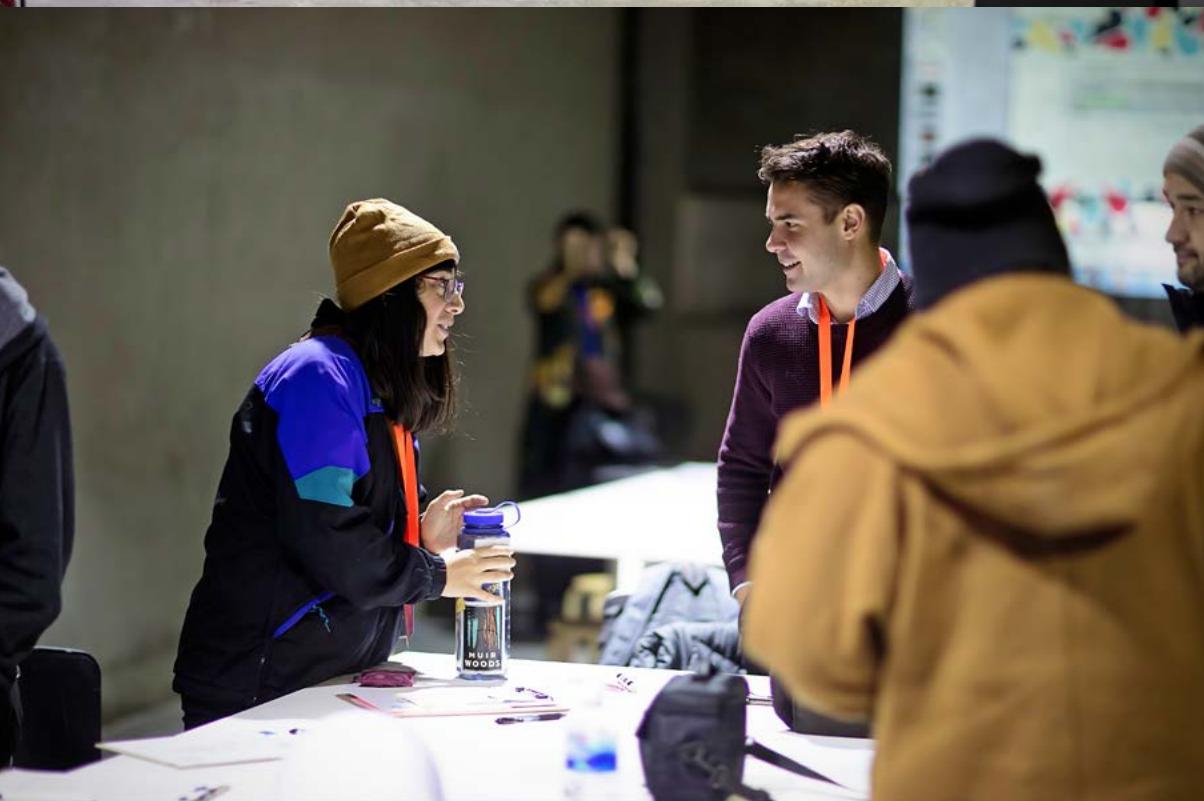
11.11토

12:00-14:00 [워크숍] ‘내 마음의 불꽃 자화상 발견’ 스토리아트 워크숍 | 이움액츠

‘사회를 위한 창조적 치유의 예술’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움액츠의 스토리아트 워크숍은 ‘나-나-우리’의 창조적 자화상 발견을 돋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불꽃이 있다면 어떤 이미지로 타오르고 있을까요?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며 완성되는 불꽃 자화상에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있을까요?’를 주제로 잊고 있었던 내 마음속의 꿈, 열정, 인격적 재능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참가자가 먼저 자기내면의 상황이나 이야기가 담긴 불꽃을 그리면 서로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가운데 그림을 돌려가며 팀원들이 다른 이의 그림 속 불꽃이 더욱 멋지게 변화되도록 응원과 격려, 지혜와 창조적 아이디어가 담긴 그림을 덧그려주는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림 속 스토리가 상호작용을 통해 아름답게 완성되어, 서로 처음 만난 사이지만 공동의 작업을 통해 자연스레 힐링하고 공감하는 관계소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5:30-16:00 [워크숍] 젠탱글로 힐링하기 | 김지현

좋은 삶은 좋은 쉼에서 나온다는 말, 아시나요? 나를 위한 취미를 배워보는 워크숍 ‘젠탱글로 힐링하기’는 지친 일상,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사하고픈 청년들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젠탱글은 Zen(선, 구도)과 Tangle(복잡한 선의 얹힘)의 합성어로 특정 패턴의 그림을 선으로 그리는 일종의 낙서법입니다. ‘선’을 이용하여 나를 표현하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힐링할 수 있는 젠탱글의 매력을 체험하는 이들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16:00-18:00 [워크숍] ‘90%를 위한 적정기술 공기청정기 만들기’ | 김광일 적정기술 메이커 CAC

2017년의 대표 키워드는? 미세먼지! 환경문제가 심각한 오늘날 ‘먼지를 걸러주는 것’이 주요기능인 공기청정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품입니다. 꼭 필요한 기능(필터, 팬)을 갖추고, 재활용 부품(폐박스)을 이용한 외장재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DIY공기청정기 워크숍’ 부모와 아이, 친구끼리, 연인끼리 다정하게 공기청정기를 함께 만들며 적정기술에 대한 이해와 조립과정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12일

13:00-13:30 [워크숍] 마크로비오틱 레시피: 오븐 없이 채식쿠키 굽기 | 엄수정 스페이스 선

You are what you eat(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해답은 ‘바른 먹거리’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른 먹거리 레시피를 체험해보는 오픈 키친 클래스가 진행됐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이 삼삼오오 함께 프라이팬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No 버터, 우유, 달걀의 마크로비오틱 채식 베이킹에 도전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13:30-14:00 [워크숍]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 엄수정 스페이스 선

‘천연제품’의 매력을 아시나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화학성분 없이 만드는 천연제품은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추운 겨울, 건조한 피부를 위해 천연 미스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워크숍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참여자의 취향에 따라 천연 아로마향을 첨가할 수 있어 직접 만드는 천연제품의 매력을 만끽하는 향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6:00-18:00 [워크숍] 종이로 만드는 일상의 물건들 | 박대희 페이퍼팝

플라스틱이나 합판과 같은 소재가 보급되기 전 우리 조상들은 찻상, 표주박, 안경집, 심지어 갑옷까지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가볍고 튼튼할 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합판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이 싼 가격에 소비되고 비싸게 매립되는 요즘, 박대희 컬처디자이너는 ‘종이’로 일상의 물건을 만드는 워크숍을 통해 DIY의 매력과 종이(친환경소재)의 견고함을 전달했습니다.







Zone 11

무브먼트 스튜디오

11.10금

13:00-14:00 [자유참여] 명상 I

15:30-16:00 [자유참여] 명상 II

16:00-17:00 [워크숍]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의 예술 I | Cholpon Zhunusova

3일간 진행될 본 워크숍의 첫 번째 세션, ‘건강한 삶 Art of Healthy Life’. 마인드풀하게 살기, 마음의 힘, 그리고 명상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17:00-18:00 [워크숍] 브라질 전통무예 카포에라 I | 줌비 무네어

카포에라는 음악, 춤, 아크로바틱이 함께 어우러져 상대방의 호흡을 읽으며 움직이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브라질 전통 무예입니다. 몸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기에 신체 운동에도 효과적이며, 강렬한 움직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카포에라 강사인 줌비 무네어와 함께한 이번 워크숍에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참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이 꽂 피운 카포에라 클래스엔 활기와 열정이 넘쳤습니다.

11.11토

13:00-14:00 [워크숍] 브라질 전통무예 카포에라 II | 줌비 무네어

브라질 전통 무예 카포에라 두 번째 워크숍. 기초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진행된 전날의 워크숍 세션에 이어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카포에라의 보다 특징적인 자세와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15:30-16:00 [자유참여] 명상 III

16:00-17:00 [워크숍]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의 예술 II | Cholpon Zhunusova

3일간 진행될 본 워크숍의 두 번째 세션, 건강한 몸과 성공적인 삶 Healthy Body and Successful Life.

만화경 요가 Kaleidoscope community yoga, 명상, 그리고 나눔으로 이어지는 체험 워크숍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7:00-18:00 [워크숍] 함께하는 즉흥 버스킹 | 언엔딩

‘언엔딩’은 ‘누구나 무용을 즐길 수 있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예술단체입니다. ‘버스킹’은 대표적인 스트리트 예술(거리예술)로써 정형화되지 않은 예술 및 공연을 뜻합니다. 짜여진 각본 없이 즉흥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버스킹 댄스가 공장동에서 펼쳐졌습니다. 재스, 힙합,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선사한 언엔딩의 멋진 댄스, 그리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춤의 매력을 일깨운 즉흥 춤 파티까지. 공장동 한켠이 발랄한 춤의 향연으로 물들었습니다.

11.12일

15:30-16:00 [자유참여] 명상 IV

16:00-17:00 [워크숍]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삶의 예술 III | Cholpon Zhunussova

3일간 진행될 본 워크숍 시리즈의 마지막 세션, ‘타이 마사지와 명상’. 경직된 머리와 등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함께 배워보고, 이어서 명상, 그리고 소감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17:00-18:00 [워크숍] 나모리의 젬베 클래스 | 나모리 이영용

남녀노소 모두가 젬베플리^{Djembefola}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젬베플라는 서아프리카 말린케 말로써 ‘젬베 연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음악, 신나는 리듬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열렬한 참여로 진행된 젬베 클래스! 처음에는 수줍게 젬베를 두드리던 참여자들이 클래스가 진행될수록 모두가 열정적으로 젬베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열정을 닮은 우리의 흥과 멋이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업사이클 갤러리

11.10금

17:00-18:00 [전시&토크] 씨앗_Sea Art | 김하영

온갖 흐르는 것들이 모이는 바다로부터 스토리를 건져 올려 창작합니다. <씨앗 - Sea art>는 자연과 사람의 잔재를 차별 없이 품어 안은 제주 바다가 창작의 원천입니다. 푸른 제주의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제주해녀문화에 담긴 배려와 지혜, ‘바다’라는 원시의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 그 경이로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창작하는 업사이클링 예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11토

13:00-14:00 [토크&전시] 미래의 돌_Modern Rock | 구엔장 장한나, 구은정

작은 것들의 가치를 믿고 주목하는 업사이클링 설치미술 그룹입니다. 지난여름, 바닷가에 떠밀려 온 많은 물건을 보았고 특히 신비한 돌처럼 보이는 오브제들을 수집했습니다. 전통적인 취미인 ‘수석^{水石}’을 수집하고 감상하는 행위에서 자연과의 혼연일치 사상과 동시에 소유욕을 느꼈습니다. 하찮은 것일지 모르는 작은 돌멩이의 들여다보며 과거가 떠올랐고,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것의 이면에 있는 삼라만상을 공유하며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소한 수다를 벌여볼까요?

16:00-17:00 [토크&전시] PBU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 | 김진규 PBU

PBU는 ‘Project By Used’의 약자로써 ‘무가치의 가치발견’을 모토로 활동합니다. PBU가 추구하는 업사이클링은 버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뿐 아니라,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물에 디자인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물에 가치를 불어넣는 ‘PBU’만의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토크를 통해 ‘버려진 것’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재해석했습니다.

17:00-18:00 [토크&전시] 고장 난 길 | 남현경 다사방 프로젝트

나의 재능으로 내 삶터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 남현경 컬처디자이너는 토크를 통해 이 질문에 답했습니다. 토크의 주제이기도 한 ‘고장 난 길’은 ‘고장=꽃, 난=피다’란 뜻으로 제주고유어를 합성하여 ‘꽃이 핀 길’이라는 뜻을 담은 도시재생 프로젝트입니다. 그녀의 ‘고장 난 길’ 스토리에는 도시재생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이 담겨있었습니다.

11.12일

13:00-14:00 [전시&토크] 예술, 업사이클링, 그리고 패션 | 얼킨

예술가의 습작을 소재로 업사이클링 가방 제작 및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합니다. 신진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그들에겐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들에겐 예술 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재능 순환'을 실현하는 '얼킨^{UL:KIN}'의 사업 방향성 및 사회적 지향점을 공유하는 토크를 통해
'공익적 아이템'을 찾는 창업꿈나무와 청소년들에게 그만의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16:00-17:00 [전시&토크] '새활용'을 만들어가는 희망 | 김연설 두바퀴 희망자전거

김연설 컬처디자이너는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자신의 지향점을 담아 창업한 '두바퀴 희망자전거'는 폐기물 새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와
디자인 감각으로 업사이클링 이상의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새활용 될 물건은
삶의 희망을 새로 찾는 노숙인들이 만들어갑니다. 새 삶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
두바퀴 희망자전거의 이야기가 따뜻한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17:00-18:00 [콜라보전시] 유리공예 | 이승호 스토리글라스



Zone 13

카페& 마켓

상설 [체험] 헬로, 튀니지! Eat. Play. Love. 튀니지의 맛 체험 |

Nada Dhaouadi and Afef Bourguiba CCAB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고대 지중해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였던 나라.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있고 풍부한 건축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 튀니지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 공감 상자: 대화를 통해 상호 공감을 높이는 툴박스 | Tribeless

'공감상자'라는 대화 툴을 활용하여 관계의 유대감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화의 기술을 나눈 Tribeless의 워크숍에서는, 부모와 아기,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관계의 참여자들이 함께 하며 소통과 공감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상설 [전시&체험] 자연을 담다: 중국 전통 민속 직물의 패턴 뒤에 숨겨진 이야기 |

Tiffany Pattinson

[워크숍] 더 가까운 마술 | 김준표

없던 것이 순식간에 생겨난다? 연초제조창 한 켠에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삼오오 흩어져있던 사람들이 김준표 컬처디자이너의 공연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재치 있는 진행과 신기한 마술공연을 통해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상상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김준표 마술사의 캐주얼 마술 퍼포먼스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체험] 드로잉 속담속닥 10초 드로잉 | 드로잉하우스

상설 [카페] 원맨카페 | 박영순

원맨카페 One Man Cafe 는 서민이 혼자 고단하게 꾸려가는 작은 카페를 의미합니다. 원맨카페 캠페인은 서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를 지원하는 캠페인으로서, 커피를 만드는 이와 커피를 마시는 이 모두에게 커피 한잔의 따뜻함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이 모두를 웃음짓게 했습니다.

상설 [콜라보 전시] 술의 소리를 보다 '오감만족' | 박준미

박준미 컬처디자이너는 충북무형문화재4호 신선주 기능이수자입니다. ‘신선주’는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이름난 청주 미원 지역에서 좋은 생약제를 사용하여 정성스레 만드는 술입니다. 연초제조장 한켠에 자리한 현대의 주막에서 향과 맛이 뛰어난 신선주를 시음하며 우리 전통 술의 매력에 빠져든 사람들의 모습이 흥겹습니다.

상설 [전시&워크숍] 산 아래서-도예와 손바느질의 만남 | 유재홍, 최은주

흙을 빚는 도예 작가 유재홍과 손바느질을 하는 웨일 작가 최은주 컬처디자이너의 협업 전시가 열렸습니다. 조각 조각난 천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손바느질하여 완성한 최은주 작가의 알록달록한 웨일 전시품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유재홍 도예가가 진행한 ‘타이슬링’ 워크숍은 한국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국적인 무늬가 각인된 도예 타일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색을 칠해 프린팅 해보는 ‘타이슬링 워크숍’은 한국적인 것에 관심 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워크숍 시간: 11.11^토, 12^일 13:00-14:00

상설 [전시] 서로의 소리 | 박용수

행복한 소리를 나누는 오디오 아티스트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도자기, 용기, 토기, 종이, 양철, 나무, 플라스틱 등)로 만들어진 각양각색의 스피커를 통해 다양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중첩을 통해 또 다른 소리가 만들어지는 소리의 예술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설 [전시&워크숍] 동심화 서당 | 안병호, 박수정 동심화

안병호, 박수정 컬처디자이너의 ‘동심화’서당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심화’는 한글과 동양화를 결합한 것으로 좋은 글귀, 좋은 그림을 의미하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꾸밈없이 그려낸 동심화가 하나, 두 개 모아져 ‘동심화 서당’의 벽면을 가득 채운 것이 보는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워크숍 시간: 11.11^토, 12^일 13:00-14:00

상설 [마켓] 좋은 향, 좋은 기분 | 굳밤

굳밤^{GOODBAM}은 모든 분이 편안한 향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핸드메이드 향초 및 디퓨저를 만듭니다.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원료를 사용하여 진심을 담아 만든 향초의 따뜻한 향기가 마켓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상설 [전시] 자연과 전통을 담은 예술 | 이종국 마블갤러리

자연의 원시성과 전통의 철학을 담은 예술 활동으로 옛 가치와 현대의 삶을 연결해가는 자연친화 예술인, 이종국 컬처디자이너는 한지 공예품 전시를 통해 우리 종이의 아름다움을 전달했습니다. 직접 재배한 닥나무로 한지를 뜨고, 한지 작품을 만드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을 감상하며, 사람들은 한지의 매력을 알아갔습니다.

상설 [전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책 공간 | 오혜자 초롱이네 도서관

청주의 작은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롱이네 도서관이 연초제조장 한켠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을 공유하고,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북 토크’와 책 속의 인물과 친구가 되어보는 ‘캐릭터 의상실’ 등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소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작은 책공간^{Micro-Library}엔 책과 사람, 그리고 그들의 추억이 넘쳐났습니다.

상설 [전시] 슬로패션의 답하다 | 김종칠

‘의복문화’를 통해 대안적 삶을 고민하고 모색하는 김종칠 컬처디자이너의 전시와 워크숍은 다양한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상의 버려지는 폐자원을 핸드메이드, 기계, 회학적 방법 등 다양한 기법을 응용하여 재탄생 시킨 ‘슬로패션’ 전시작품은 재활용 의류에 대한 신선함을 전달했고, 자투리 천을 활용하여 간단한 손바느질로 직접 옷을 만들어보는 참여형 워크숍은 슬로패션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Zone 14

클래스 |

11.10금

17:00-18:00 [워크숍]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당신을 위한 실용철학 I |

Ilanit Adar & Gal Matoki 뉴아크로폴리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이들이 나섰습니다. 인종, 종교, 문화의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고민을 나누는 워크숍이 3회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보며 우리가 함께 변화해나가야 할 방향의 실용철학에 대한 지식을 나눠보는 워크숍 시리즈의 첫 번째 세션, ‘인간: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는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는 진지한 모습으로 펼쳐졌습니다.

11.11토

13:00-14:00 [토크] 적정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활동: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놀로지까지 이어지는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 김광일 적정기술 메이커 CAC

‘메이커스 Makers’의 뜻을 아시나요?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메이커스’로서 살아가는 김광일 컬처디자이너의 삶의 방식에 많은 이들이 귀 기울였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만들 거리를 찾기 위해 늘 열린 마음과 넓은 시야로 살아가는 그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가고, 로우테크에서 하이테크놀로지까지 세대가 요구하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나가는 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메이커’의 토크였습니다.

16:00-17:00 [토크] 반짝반짝 빛나는 실버세대 문화공간 '인천 미림극장' | 최현준 추억극장 미림

1957년 천막극장으로 출발해 2004년까지 인천시민의 문화명소였던 미림극장은 2013년 ‘고전영화’와 ‘실버’란 두 가지 키워드로 재개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노인의 문화예술복지를 지향하며 어르신이 부담 없고 즐겁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미림극장 이야기를 공유하며 실버 세대의 잔잔한 웃음과 소소한 행복을 지키는 ‘실버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7:00-18:00 [워크숍]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당신을 위한 실용철학 II |

Ilanit Adar & Gal Matoki 뉴아크로폴리스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 차원의 생각하고 나눠보는 3회에 걸친 워크숍 시리즈의 두 번째 세션, “사회: 보수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11.12일

13:00-14:00 [토크]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생기는 변화 | 강병진 선데이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언제 행복한가?’에 대한 고민으로 창업에 도전한 강병진 컬처디자이너는 자연에 관심이 많고 사람에게 소소하게 대접하는 음식이 좋아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든 각자 삶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의 창업 성공기를 통해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방법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16:00-17:00 [워크숍] 아프리카의 미식 문화, 아시아의 공간을 만나다 | Fatimaah J Menefee

아프리카의 미식의 세계. 음식과 국제관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음식외교’에 대한 이야기와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17:00-18:00 [워크숍]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당신을 위한 실용철학 III |

Ilanit Adar & Gal Matoki 뉴아크로폴리스

‘변화’에 대한 의미를 개인적, 사회적, 지구적 차원의 생각하고 나눠보는 3회에 걸친 워크숍 시리즈의 마지막 세션, “세계: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전세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가 진행되었습니다.



Zone 15

클래스 //

11.10금

17:00-18:00 [토크] 다른의 예술 | 정원일, 다카하시 스미요, 김형희

여러분에게 ‘다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몸과 마음이 불편한 것이 다름일까요? 그렇다면, 장애란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장애의 ‘다름’으로 자신만의 예술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액티브 아트의 최전방에서 장애 작가들과 함께했던 정원일, 일본에서 베리어프리축제를 통해 장애 연주자들의 뛰어난 연주를 대중들에게 소개한 다카하시 스미요, 장애 작가를 넘어 뮤지컬 ‘비상’을 제작하는 제작자로서 장애인들의 예술적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김형희의 컬처디자이너의 이야기를 통해 힐체어의 눈높이로 바라보는 세상, 시각장애인의 전하는 색깔 없는 세상 등 장애의 ‘다름’으로 풀어내는 ‘예술’, 장애인 예술 ‘액티브 아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11토

13:00-13:30 [토크] 아띠 이야기 | 백시영 아띠인력거

북촌, 인사동, 덕수궁 돌담길 등 서울의 아름답고도 역사 깊은 지역을 달리는 인력거를 아시나요? 그 인력거에는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담겨있습니다.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즐거울 수 있는 ‘서울 여행’을 고민하며 시작한 관광벤처사업 ‘아띠인력거’의 과거과 현재, 그리고 미래. 부족하지만 끝없이 도전하며 희로애락을 쌓아가는 청년사업가의 이야기가 함께 했습니다.

13:30-14:00 [토크]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다 | 끌림리어카

작은 아이디어가 큰 변화를 이꿉니다. ‘끌림리어카’는 세상을 바꾸는 청년들의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끌림 리어카’는 대학생이 직접 만들어 폐지 줍는 노인에게 제공합니다.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가볍고 견고한 리어카를 연구 및 개발하였으며, 리어카 옆면을 광고판으로 활용, 광고 수익은 노인복지 위해 사용합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이끄는 큰 변화. 청년들의 창의력이 원동력이 된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YOU + I = BETTER
TOGETHER**

BETTER
TOGETHER
2017
세계문화축제



WORLD CULTURE OPEN X CHEONGJU CITY

16:00-17:00 [토크] 사회를 위한 창조적 치유의 예술 | 이움 이움액츠

예술가에서 교육가로, 또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한 이움 컬처디자이너의 가장 큰 키워드는 ‘치유’입니다. 예술이 가진 치유의 가치를 나누고자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의 라이프 스토리, 사회적 기업 ‘이움액츠’의 교육자로 활동하며 느끼는 예술 치유의 감동과 희망을 더욱 많은 이들과 나눔으로써 개인의 개성과 타인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회를 치유하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17:00-17:30 [토크] 인생은 하나의 긴 여행이다 | 김태진 동네줌인

직업만도 6-7가지이며, 그만큼 삶의 스토리도 다양한 김태진 컬처디자이너. 그의 토크에는 유독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수십 가지의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그 별난 경험이 스펙이 되어 대기업에 입사한 그이지만, 현재의 그는 광주에서 청년을 위한 공간 ‘공네줌인’을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의 이야기에 쏟아진 많은 박수가 바로 ‘공감’이겠죠?

17:30-18:00 [토크] 지역 예술가를 아시나요? | 박석영 씨드웰

‘여러분, 좋아하는 뮤지션이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박석영 컬처디자이너의 토크에 참여자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이어진 질문: ‘좋아하는 지역 뮤지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답한 참여자는 없었습니다. 그 아쉬움을 열정으로 바꾸며 지역의 음악문화를 만들어가는 로컬 뮤지션과 그들의 공연문화, 나아가 지역 예술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의 토크에는 즐거움과 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창의적이고 친근한 문화를 직접 만들어가는 젊은 문화 기획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문화의 반짝거리는 가능성들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1.12일

13:00-14:00 [워크숍] Empathize. Enterprise. Empower. |

Charlotte Smith and Julian Fisher 벤처에듀케이션

빠르게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공감’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교실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캔버스 앞에서 어디서든-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워크숍에서 협업에 있어 꼭 필요한 공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6:00-16:30 [토크] 두려움이 키운 용기 | 박주희 밟구가세

‘두려움이 많은 사람’. 30개국, 777일간의 자전거 세계여행. 웬지 어울리지 않은 이 두 문장이 박주희 컬처디자이너의 토크 주제입니다. 두려움에 조그마한 용기를 더하니 넓어진 세상이 있었고, 넓어진 세상이 주는 또 다른 두려움이 더 큰 용기로 바뀌며 완주한 777일간의 자전거 세계여행 이야기. 그녀는 ‘두려움만큼의 용기가 있다’란 마법의 주문으로 사람들에게 긍정 에너지를 선물했습니다.

16:30-17:00 [토크] 나다움을 지킨 호기심 | 안다비 아이디어 디렉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간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거친 ‘Why’. 그 ‘Why’라는 질문에 대한 자문자답이 안다비 컬처디자이너의 정체성인 ‘WhyART’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호기심을 공유하며 사람들의 색을 찾아주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색을 발견하고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그녀는 토크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며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을 무슨 색인가요?

17:00-18:00 [토크] 작은 나눔, 큰 행복 | 이철 워크엔런 장애동물 의지보조기 연구소

유기동물 보호 운동 및 장애견의 보조기를 제작하여 무료로 지원하는 이철 컬처디자이너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장애란 우리의 관심과 나눔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토크를 선사했습니다. 더 이상 후천적 장애로 유기되는 애완동물이 증가하지 않도록 장애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전해졌던 그의 토크에는 유독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Definitions



Zone 16

클래스 III

11.10금

17:00-17:30 [토크] 하루를 쓰다 | 최성문 소설가, 시각예술가

'하루를 쓰다'는 모든 사람의 하루가 공평하다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계층 365명이 365일의 날짜를 써서 달력을 완성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하루를 쓰다'는 터키, 네팔, 일본, 중국, 몽골, 한국에서 18개국 국적의 아시아인들과 작업했습니다. '하루를 쓰다' 달력의 순수익금 전액은 도시빈민, 난민, 다문화 이주민의 자활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65개 하루의 일부와 일력을 전시합니다. 각기 다른 손글씨가 모여 완성된 '하루를 쓰다'의 달력에 담긴 Better Together의 희망, 사람들에게 전달됐을까요?

17:30-18:00 [토크] 여럿이 함께 | 와합 아가 헬프 시리아

2009년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일한 시리아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情과 애탏심에 감동하여 더 많은 시리아인과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헬프 시리아'라는 구호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시리아 내전의 실상을 알리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난민들을 돋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평화롭지 않은 국가를 대변하여 평화를 이야기하는 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1.11토

13:00-14:00 [토크] 낡았지만 새롭고, 오래되어 가치 있다 | 박한아, 박지현 익선다다

서울 종로의 낙후된 한옥마을 익선동. 시간의 흔적으로 낡은 거리 곳곳에는 오랜 시간을 채운 이 곳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익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익선다다'의 두 청년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존중한다 말합니다. 낡았지만 새롭고, 오래되어 더욱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것. 도시재생에 대한 익선다다의 생각입니다.

16:00-17:00 [토크] 공감, 공유, 공생을 위한 디자인 | 신윤예 공공공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에 가치를 불어넣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역 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해결하며 지역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는 다양한 공공 공간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기반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한 신윤예 컬처디자이너.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지역재생' 사업의 중요한 핵심 가치와 실현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토크를 통해 '공감, 공유, 공생'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17:00-18:00 [토크] 청년! 지역(농어촌)에서 살아도 괜찮아! | 김영민 제주폐가살리기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도의 폐가를 공공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김영민 컬처디자이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유쾌하게 전했습니다. 지역을 떠나 서울로만 향했던 청춘들이 이제는 다시 지역으로 발걸음 합니다. ‘청춘’이란 이름으로 지역에서 유익하게 먹고 사는 방법, 취업이 아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의 매력 등 그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젊은 세대에게 생생한 로컬라이프의 노하우를 전달했습니다.

11.12일

13:00-14:00 [토크] 한복, 전통문화, 여행 아무말대잔치 | 권미루 한복여행가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이 한복인가요? 오래된 것이 전통이고, 오래 전 옷이 한복일까요? 한복을 입고 전국을 누비고, 세계를 여행하는 ‘한복문화활동가’ 권미루 컬처디자이너는 전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전통이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오늘에 함께 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만들어가는 권미루 컬처디자이너의 이야기가 한복과 함께 반짝였습니다.

16:00-17:00 [토크] 3D 프린터로 새 삶을 출력하다 | 이상호 ‘만드로’ 저비용 3D프린팅 전자의수 제작사

“3D 프린터로 만든 가장 값진 것은 전자의수입니다.” 이상호 컬처디자이너의 토크에는 진심이 담겨있었습니다. 사고로 두 손을 잃은 동갑내기 친구. 하지만 한 쪽에 4천만 원이나 하는 전자 의수의 가격 때문에 의수 장착을 포기한 그를 돋고자 3D 프린터를 이용한 전자의수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호 컬처디자이너는 아름다운 기술은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 말합니다.

17:00-18:00 [토크] 지역에서 청년들과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 최천 충동

청주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년문화기획자 최천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쓰레기 사진전, 미니콘서트 등 청주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문화기획 활동을 하는 희로애락과 노하우를 관객과 나누었습니다.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청주’와 동행중인 청년문화기획자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함께하세요.



Zone A&C

포토 퍼포먼스& 전시

상설 [포토 퍼포먼스&전시] Postures: Hang On & Balance -

“당신이 버틴 시간만큼 세상은 조금 더 좋아집니다” | 송성진

송성진 컬처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오랜 시간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각국의 삶과 일상이 담긴 ‘집’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작품화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체류 중 보트에 매달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Posture: Hang On’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Hang On’은 꽉 불들다, 계속 버티다 라는 의미입니다. ‘Postures: Hang On’ 프로젝트는 철봉과 평균대 위에서 드러나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자세를 포착하는 작업입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진 작업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표현하는 일상의 퍼포먼스이자 작가에겐 즐거운 촬영의 과정이었습니다. 작업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모습으로 철봉과 평균대를 벼텨내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각양각색의 삶과 표정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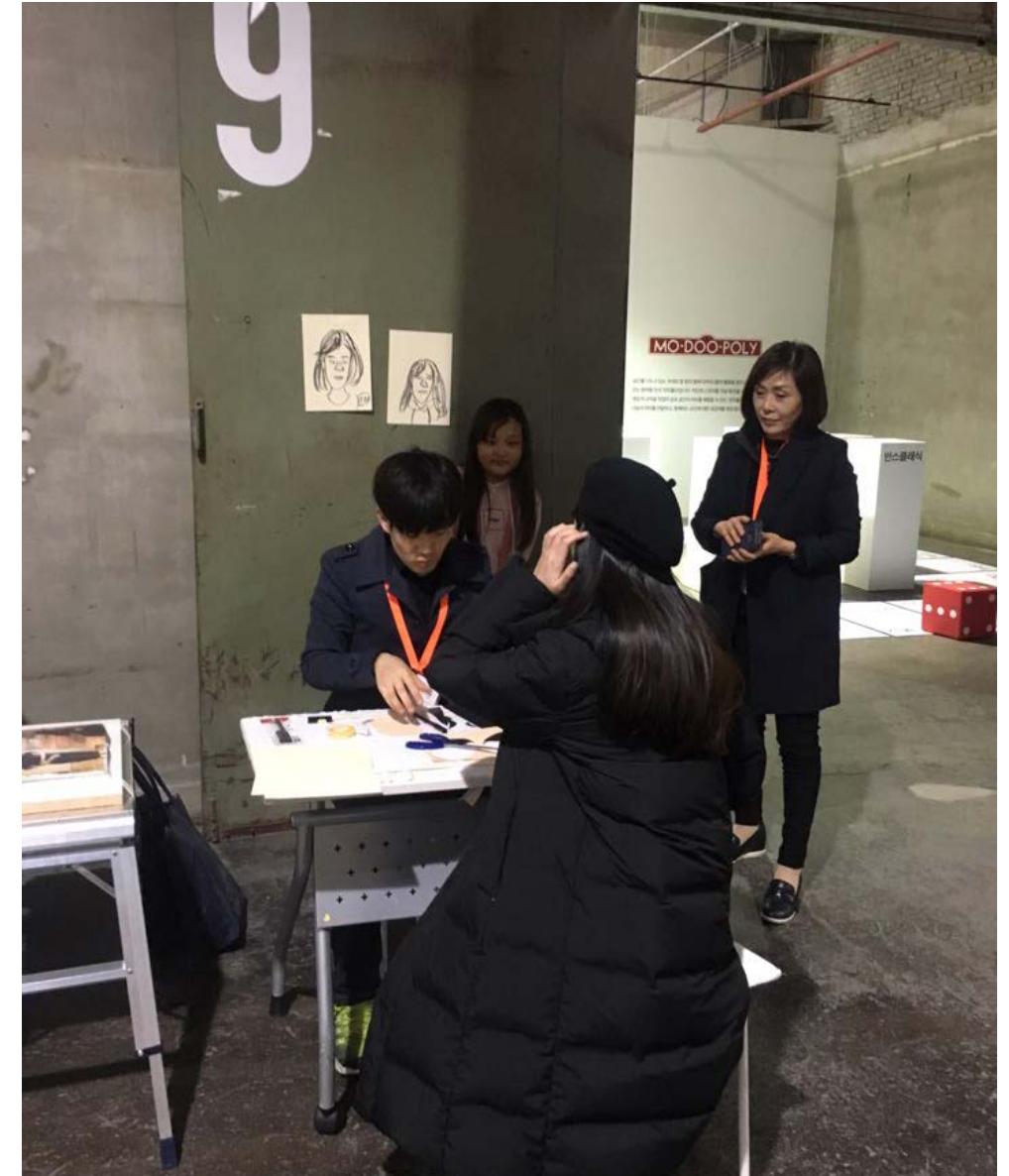
Zone C

관객 참여 이벤트

11.10^금 17:30-18:00 / 11.11^토 16:00-17:00

[이벤트] 관람객 초상화 그려주기 | 박태현

발달장애 작가 박태현 컬처디자이너는 사람들의 첫인상을 빠른 시간 안에 캐치하여 30초 내에 그려내는 라이브드로잉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Zone D

복합전시

[전시&체험] **한스의 컴퓨터 공감게임 BABA YUGA** | Hans Galliker

라이브로 진행되는 컴퓨터 게임쇼를 통해 ‘공감’과 ‘지배’의 상호작용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전시] **팬텀 사진전** | Huda Ali Al-Naib

저에게 예술은 인생에 대한 생각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삶은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저는 작품에 그런 삶의 이미지의 핵심 본질을 포착하고 싶습니다. 제 작품에 ‘추상’은 키워드이고 ‘자연’은 영감의 근원입니다. 정신과 형태 그리고 상상을 기본 요소로 하는 예술작품을 추구합니다.

[전시] **I am from U-Z-B-E-K-I-S-T-A-N 그림낙서 전시** | al-fergani

헬로우!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에서 온, 페르가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al-fergani 라고 합니다. 10년 전부터 세계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 우즈벡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틈틈이 그림 낙서를 그려왔습니다. 우리 고향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서였죠. 저의 그림을 통해 여러분도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시] **온전히 의식하기** | HOLSTEE

모든 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홀스티의 미션은 사람들이 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돋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적 삶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닌 매일매일 실천해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전시] **권터와 해문의 ‘놀이터에서 만나자’ 사진전** | Günter Beltzig & 편해문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배웁니다. 또 어린이들은 어디든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터, 폐가, 동네 골목길 등 어린이들의 상상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더 나은 놀이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민해왔던 독일과 한국의 놀이터 디자이너들의 생각과 시선을 담은 사진과 드로잉 작품을 전시 했습니다.





B · E · K · I · S · T · A · N ·

~~IKE~~ R.O.M.



[전시] 하루를 쓰다 | 최성문 소설가, 시각예술가

'하루를 쓰다'는 모든 사람의 하루가 공평하다는 의미를 담아 다양한 계층 365명이 365일의 날짜를 써서 달력을 완성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하루를 쓰다'는 터키, 네팔, 일본, 중국, 몽골, 한국에서 18개국 국적의 아시아인들과 작업했습니다. '하루를 쓰다' 달력 순수익금 전액은 도시빈민, 난민, 다문화 이주민의 자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65개 하루의 일부와 일력을 전시합니다.

[참여형 라이브드로잉]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요? | 김홍선 피쉬볼링

'아파트'는 여러분께 어떤 이미지인가요? 아파트 *apart*라는 말은 사실 아파트먼트 *apartment*의 잘못된 영어입니다. 하지만, '따로, 헤어져, 떨어져, 산산이' 같은 *apart*라는 영어단어의 뜻이 재미있게도 현대를 사는 우리의 고립된 삶과 무척 닮아있습니다. 대중과 함께하는 드로잉을 통해 다양하고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각자의 공간에 격리된 Apartment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함께 채웠습니다. 행사의 끝에 따뜻하게 변화한 'APARTMENT'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전시] 돼지여행 - 행복을 그리다 | 민병동

공공예술활동가 민병동 컬처디자이너는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프로젝트 '돼지 여행'으로 사람들에게 예술참여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예로부터 다산과 행운을 상징하는 '돼지'가 청주의 연초제조장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돼지여행의 시작에 다양한 이들이 자신만의 방법(글, 그림 등)으로 소망과 행복을 더했습니다. 연초제조장에서 함께 만든 돼지여행의 시작, 많은 이들에게 공공예술의 즐거움이 전달됐을까요?







SS III



BETTER
TOGETHER
2017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with 충북 지역 컬처디자이너

서로 다른 소재와 장르를 가지고 활동하는 청주와 청주 외 지역의 컬처디자이너들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서로에 대해 공감하고 알아가며 융합 문화콘텐츠 작품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Zone 2

상설 [전시] 연초제조창 문화일대 지도 임재건 1일1시 x 이전진 김효정 문화식당

‘어쩌면 우리가 놓쳤을 아름다움’은 청주 옛 연초제조창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심코에 지나쳐온 공간들에 글을 엮어 재조명한 문화 화보입니다. 화보에 소개된 곳들이 청주시민, 타지역의 여행자 모두에 매력일 수 있게 시를 통해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이용자에게 감성이익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Zone 4

상설 [전시] 생명 그리고 평화 | 손순옥 화가, 솔방을 작품 x 박성준 서울, 미디어아티스트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서정과 서사를 넘나들며 소통하는 두 작가의 만남: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티스트와 여성, 생태 환경, 인권 평화를 주제로 작업해 온 충북 작가가 만나 공동체 삶 속 ‘평화’의 의미와 그 가치를 그려내는 작품을 공유합니다. 서로 다른 장르가 만나는 ‘콜라보레이션’의 진정한 매력과 다른 장르로 만드는 하나의 메시지를 통한 화합의 충격을 느껴보세요.

Zone 6

상설 [퍼포먼스&전시] 장소로서의 청주, 그리고 한복 이야기 |

최석원, 문호영 사진작가 x 권미루 서울, 한복여행가

한복을 입고 문화적 변화를 꾀해 온 한복여행가 권미루와 청주토박이 포토그래퍼 문호영, 최석원의 만남: 청주의 문화와 일상적 이야기에 한복 특유의 정서가 만나니 웬지 새롭습니다. 청주의 일상과 이야기를 카메라로 담아내는 사진가와 우리의 정서를 한복으로 풀어내는 한복여행가의 만남의 순간은 이토록 즐거웠습니다.

Zone 7

11.10 금

[웰컴디너] 안덕벌 콩 이야기 | 조송주 예술뛰내, 김정희 전지박물관

‘안덕벌 폐과부 촌^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덕벌의 억척스러운 여인들을 뜻하는 말이자, 안덕벌의 콩의 역사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콩과 두부가 유명한 청주 안덕벌 지역의 숨은 이야기와 함께 맛있는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웰컴디너] 새터민의 정직한 밤상 | 박요센 요벨팜

'요벨팜'은 새터민 청년들의 자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으로서, 강원도 평창에서 유기축산 방식으로 돼지를 기르고, 그 퇴비를 이용하여 충북 충주의 요벨팜 농장에서 500그루의 과수를 관리하는 '생태순환농장'입니다.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자'는 요벨팜의 모토가 담긴 건강한 음식과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웰컴 공연] Together Further

세계 민속 프로젝트 그룹 'Together further'는 매년 새로운 멤버로 구성하여 활동하는 다국적 밴드그룹입니다. 멤버들은 언어와 피부는 다르지만 몽골,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의 전통악기와 토속적인 음악을 소재로 다양한 작업을 펼치고 함께 협업하며 음악으로 하나 됩니다. Together Further의 흥겨운 멜로디에 빠져보세요!

Zone 12

상설 [전시] 업사이클링 | 스토리글라스 x PBU: ReStoryLamp

ReStoryLamp는 수입된 빈 병을 업사이클링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스토리글라스 이승호 작가와 철재 소재로 조명을 제작하는 PBU 김진규 작가가 협업하여 제작한 조명입니다.

ReStoryLamp는 청주연초제조장의 새로운 활용과 소통을 주제로 제작되었습니다. 재활용된 소재들과 파이프 전화기 형태는 작가와 관객의 소통, 붉은색은 다시 타오르는 연초제조장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Better Together Night

베터투게더 나이트

11.11 토 20:00-22:00

컬처디자이너들의 자유로운 소셜라이징/네트워킹 파티, Better Together 나이트.

3일 동안 참가자들은 CItalk, 오픈보이스,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 관심 있는 주제와 내용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컬처디자이너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프로그램 일정상 모든 프로그램과 컬처디자이너들을 만날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Better Together 나이트 ‘2分 오픈마이크’.

Better Together 나이트에서는 컬처디자이너들이 한 번에 한 팀씩 무대에 올라 2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 ‘오픈마이크’ 방식으로 자기소개하며 자신의 활동을 최대한 어필했습니다.

컬처디자이너의 다양각색 개성만큼 오픈마이크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다채로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풀어내는 컬처디자이너도 있었고 노래, 춤, 무예, 드로잉 등 다이내믹한 방법으로 자신의 활동을 선보이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컬처디자이너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소개하는 사람, 한국어로 소개하는 사람, 자원해서 동시통역을 도와주는 사람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 즉흥적 요소로 인해 더 흥미진진하고 자연스러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타인의 개성을 수용하며 ‘컬처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친구가 되는 Better Together 나이트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모두가 무대에 올라 춤과 노래를 더한 흥겨운 어울림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간적 제한으로 사전 신청한 70명 모두가 무대 위에 설 수는 없었지만 그 중 27팀이 메인 스테이지 무대에서 오픈마이크 시간을 가지며 끼와 열정을 발산했습니다. Better Together 나이트의 공식 순서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컬처디자이너를 만나고 대화하는 네트워킹의 뜨거운 열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Ataullah Shirzai, Bikzad Abdullah, Blanca Madrigal, Cholpon Zhunussova, HOSTEE, Hui Chen Chao, Fatimaah Menefee, Jinna Kim, Shui Lam Wong, Jenna Lee, Kseniya Tsoy, Manav Mehta, Mir Salamuddin Hakim, Nael Hailemariam Teklehaimanot, Suren, Yang Lei, Yueh An Chang, Wahab Agha, Zumbi Munair, 김상희, 김성일, 노동주, 문윤정, 박나은, 박주희, 안다비, 양동준, 양준, 엄수정, 이상호, 이성철, 이영순, 이영용, 이은혜, 최강석, 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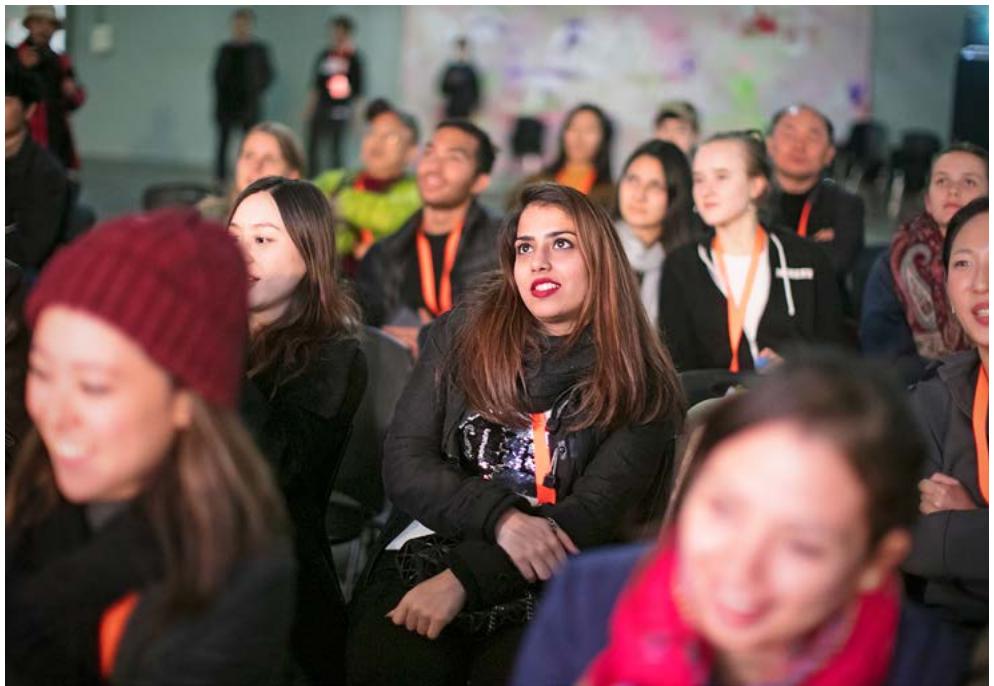














Farewell Night

페어웰 나이트

11.12^일 18:30-20:30

서로의 길을 응원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시간, Farewell 나이트.

Farewell 나이트는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공식적으로 클로징하는 자리로서, 음식과 음악, 그리고 공감의 여정을 통해 친구가 된 컬처디자이너들이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2박 3일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프로그램,

Farewell 나이트를 더욱 빛내준 것은 이스라엘 4인조 월드뮤직 밴드 굴라자^{Gulaza}가 선사하는 유니크한 라이브 음악이었습니다. 사하라 전통 현악기들을 비롯하여 서양 악기인 첼로, 어쿠스틱 기타, 드럼 및 보컬로 구성된 밴드 굴라자^{Gulaza}는 ‘예멘 여성의 아픔, 강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레퍼토리를 통해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유니크한 감성의 음악 공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밴드가 예멘의 음악을 연주하고, 남성이 여성의 노래를 부르고, 공공장소에서는 드러내어 부를 수 없었던 여성들의 음악을 무대 위에서 연주한다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앵콜 요청으로 마지막 곡이 시작되자 컬처디자이너들은 모두 일어나 손을 잡고 무대를 에워싼 하나의 원이 되어 음악과 함께 춤췄습니다. 굴라자의 하모니가 지난 3일 동안 문화의 향연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흥겨움에 정점을 찍으며 문화로 하나 되는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예멘에서 온 컬처디자이너들은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예멘의 아름다운 문화가 전세계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에, 즉흥적으로 무대 위에 올라 감사와 기쁨의 인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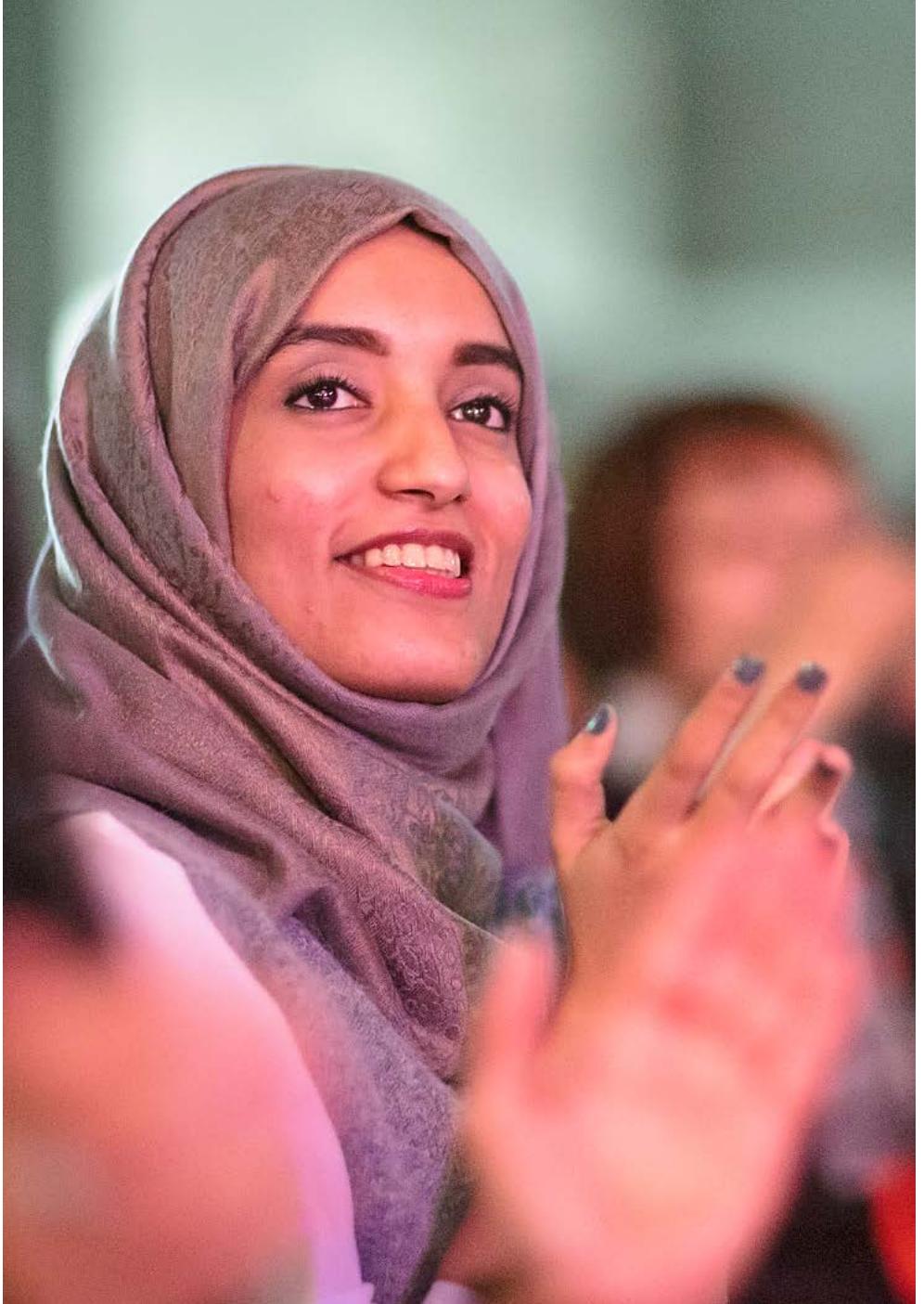
2박 3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이들의 작은 바람 하나하나가 모여

공감과 평화에 대한 큰 비전을 보여준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근대 산업화의 공장에서 내일을 만드는 문화의 공장으로 변화 중인 청주 옛 연초제조창에서 문화로 하나 되며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한 Better Together 2017은 함께함의 또 다른 희망을 선보이며 2017년 11월 12일,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만든 사람들: Benjamin Aylon, Ian Aylon, Igal Mizrahi, Leat Sabbath, 정달호



272



273





BETTER
TOGETHER
2017이
남긴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3

Better Together 2017이 남긴 의미

"우리 시대 지구촌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를 재확인"

공감과 협업의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확인하다. 21세기가 공감과 협업의 시대라는 것은 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 곳곳에는 이런 시대의 필요와 흐름을 느끼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나름의 방법과 전문성을 통해 창의적으로 풀어내어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공익활동가—컬처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행동으로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는 전 세계 컬처디자이너들이 지혜와 아이디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며 협업을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은, 새로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요구하는 지구촌의 흐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국적, 언어, 피부색, 연령, 성별, 분야 모두 다르지만 ‘함께 행복한 세상’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가진 공통점 하나로 서로 마음을 열고 즐겁게 공감, 교류하는 모습은, 공공^{公共}·공익^{公益}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지구촌의 중요한 공감의 토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글로벌 공익활동가들이 나누는 콘텐츠와 메시지”

글로벌 문화활동가들을 한 곳에서 만날 기회 ‘글로벌 컬처디자이너들의 만남’이라는 취지로 기획된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은 열린 행사로 진행되어 시민 누구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미국, 캐나다, 중국, 스페인, 루마니아, 예멘, 시리아, 카자흐스탄, 핀란드, 그리스 등 세계 50개국과 전국에서 모인 컬처디자이너 500명과 자유롭게 만남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무료 공개 워크숍, 컬처디자이너 토크와 강연, 글로벌 연사와의 대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 총 14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3일 동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공익활동가들이 대한민국에서 공감과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발신 2017년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불안했던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준비 기간 중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왔습니다. 결국 행사 참석을 포기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로 온 컬처디자이너들은 난민, 학살, 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용서와 화해’, ‘공감과 평화’를 향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욱 뜻 깊게 했습니다.

청주에서 처음 열리는 사람 중심 국제행사 기술 성과물 중심의 박람회가 넘치는 가운데 교육의 도시 청주에서 사람 중심의 다양한 워크숍, 토크 등 프로그램 위주의 특별한 국제행사가 열려 그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문화로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문화 공익활동가인 컬처디자이너들이 그동안 세계 각국 삶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 비전 등을 3일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나누며 교류하는 글로벌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청주와 세계가 만나 서로 교감하다"

안덕벌 주민들과 문화인들이 직접 알려주는 청주의 문화, 청주의 이야기 청풍 명월의 양반고장 청주시민들, 특히 안덕벌 주민과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청주를 방문한 국내외 참가자들이 청주를 보다 입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청주 근대사의 면면을 담고 있는 청주 연초제조창 건물 및 지역 일대를 안내하는 도슨트 투어, 청주의 숨은 문화 지점들을 소개하는 문화지도, '안덕벌 콩'을 소재로 안덕벌 지역의 특별한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정성스런 음식 등이 그것입니다. 덕분에 청주를 처음 방문한 국내외 컬처디자이너들에게 Better Together 2017은 한국인의 정, 청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주 작가와 외부 컬처디자이너의 협업으로 탄생한 새로운 콘텐츠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에서 진행된 총 140여 컬처디자이너 페어&스쿨 프로그램 중 30개의 프로그램이 청주와 충북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주의 작가들과 다른 지역의 컬처디자이너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선보인 새로운 콘텐츠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에 한복을 알리는 한복 여행가와 청주지역 사진작가가 만나 청주의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한 사진 작업을 위해 청주 곳곳을 누볐고, 문화스토리를 개발하는 컬처디자이너와 청주의 청년문화그룹이 협업하여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청주의 아름다움'을 찾아 문화지도 엮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향후에도 서로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이 상호 영감을 주고 받으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전국 컬처디자이너의 협업 프로그램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의 창의적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의 문화적 방향 뉴욕 타임스퀘어 일대에 전 세계 아티스트와 뮤지션을 초청하여 시민에게 선보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타임스퀘어 아트 얼라이언스'의 디렉터 데브라 시몬, <Pairs, I Love You> 등 영화를 제작하며 시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도시 발전을 이야기하는 엠마뉴엘 벤비히가 제안하는 청주 연초제조창의 문화적 개발 방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청주 연초제조창이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본격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시점에 '커뮤니티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화 중심, 사람 중심, 프로그램 중심이어야 한다'는 글로벌 디렉터의 메세지가 더해져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역 인재 발굴과 양성에 지속적인 추진력을 더하다"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협약의 핵심, 지역 인재의 발굴과 양성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의 개막식과 함께,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아침편지재단, 월드컬처오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교육적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한 협약의 내용은 이번 세계문화대회의 의의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아울러 Better Together 2017의 개최를 계기로 개최지 청주에서도 지역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향후 지역차원 및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한 실천방안의 논의도 계속될 계획입니다.





컬처디자이너들의 목소리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좀 더 기여하고 싶다는 다짐을 새로 하게 됐어요.

솔직히 상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 이런 '쿨'한 행사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였어요. 긍정적인 자극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과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영감과 도전은 덤이고요.

대전=대덕연구단지=과학의 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미래에 청주가 창의예술단지, 문화의 지역으로 인식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동을 더 잘해나갈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나와 나의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고 항상 열려있는 WCO의 감각이 이 연초제조창 공간에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컬처디자이너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국내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청주에 이런 멋진 장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옛 연초제조창이 청주의 랜드마크로 문화의 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익활동가들의 만나고 네트워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5년만 지속될 수 있다면, '공익', '공공'을 주제로 하는 세계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행사가 될 거예요.

연초제조창의 개발과 기획에 정책적으로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Better Together 2017에서는 진정한 소통, 친밀한 교류가 가능해서 정말 좋았어요. 특히 스스로 없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또 서로 경청하는 분위기와 환경이 된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써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같이 하고 싶어요.

SHARE YOUR VOICE WITH US.

What is one action I can take to foster a culture of empathy and peace? 



WORLD CULTURE OPEN



청주 시민들의 목소리

청주의 활동가들과 콘텐츠가 세계무대에 보여질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규격화된 축제나 행사에서 벗어난 재미있고 자유롭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다양성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존중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예술인, 활동가들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연초제조창의 개발이 정말 문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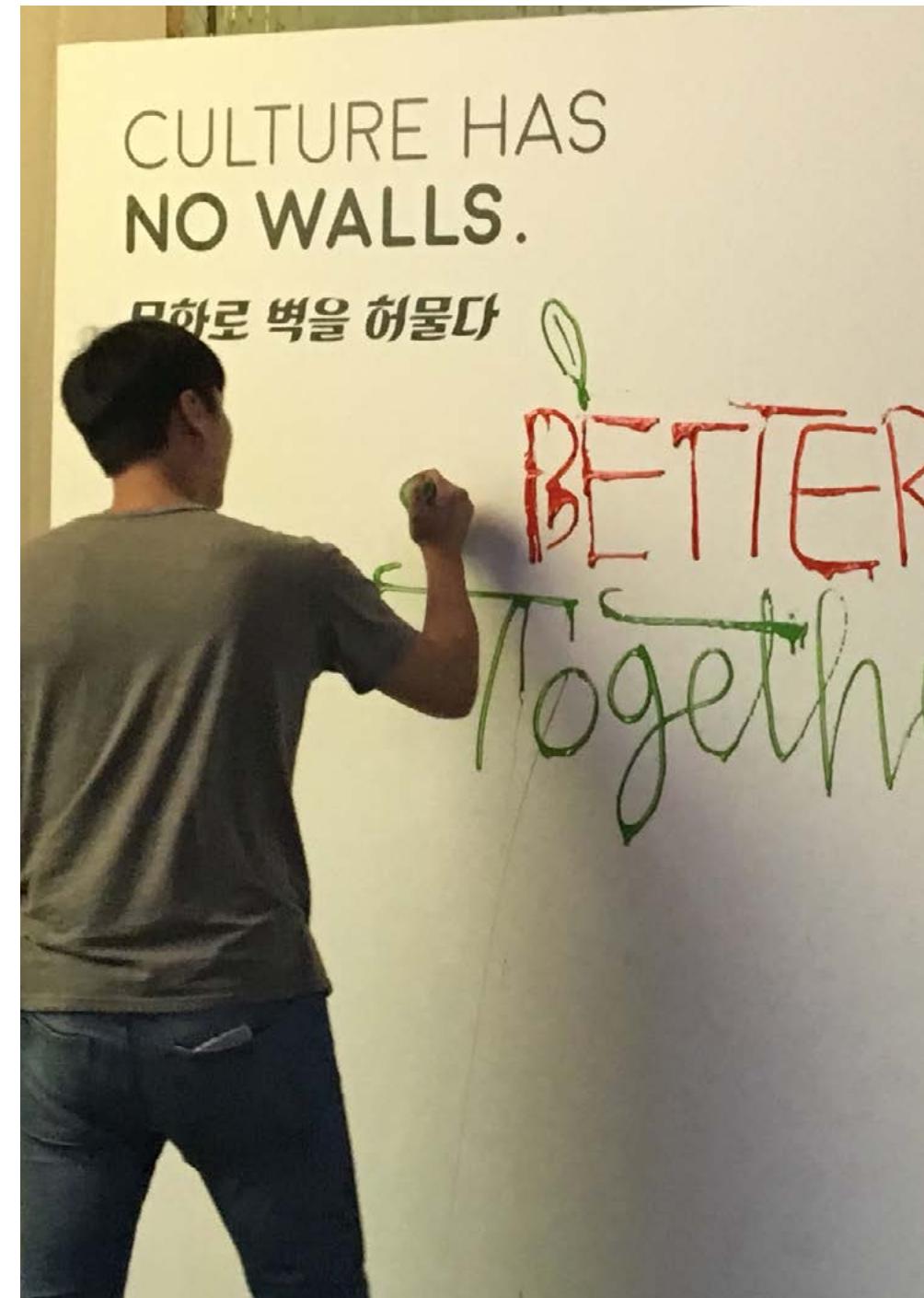
청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행사였어요. 청주에서 진행한 행사 중 가장 신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연초제조창의 의미를 재확인 시켜준 행사였어요.

청주 시민으로서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 행사였어요. 이런 행사가 청주에서 열리다니 너무 좋습니다.

연초제조창이 이렇게 멋진 곳이었나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이 장소가 가진 역사성과 특징이 제대로 잘 보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이 단지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물이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들의 목소리

스페인과 영국의 폐공장처럼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술의 향연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문제다. 균일성과 다양성의 조화, 과거와 현재의 조화, 지역과 글로벌의 조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공간이다. 이번 글로벌캠프의 핵심은 연초제조창이라는 매력공간을 확인한 것이고, 그 공간에서 구경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함께했다는 것이다.

국제녹색포럼 이사장 김수종

청주는 맑고 향기로운 고장이고 순수함과 비움의 미학을 간직하고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으며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다.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통해 함께 경험한 것처럼, 청주에서 맑은 기운이 넘치는 생명의 울림을 만들자. **소설가 신아연**

지역문화의 치명적인 단점이 경직성과 자만감인데 이번 행사는 청주시민들에게 열린 사고와 새로움의 확장을 심어주었다고 생각한다. 담배공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지, 이곳을 어떻게 가꾸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이다. **서원대학교 교수 박종관**

청주 시민들, 특히 학생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자 추억이 될 수 있는 행사였고 담배공장의 무한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 행사였다. 앞으로도 청주에서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

청주 시민들이 이번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옛 연초제조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계기였고, 이곳이야말로 전시와 공연, 페어와 퍼포먼스 등 지구촌이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100여 명의 문화기획자들과 행정공무원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도 컸다. 세계문화대회를 통해 청주 옛 연초제조창이 글로벌 문화공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면 좋겠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호일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연성을 갖고 있다. 도시의 삶도 그러한데 연초제조창은 인공적이고 산업화의 유산이지만 분명 자연성을 닮았다. 그래서 아름답다. 다 함께 공감하는 전시, 공연, 토론, 그리고 추억과 사랑이 깃든 먹거리까지 특별했고 인상적이었으며 값진 경험이었다. 세상은 살만한 충분한 가치로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 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사무총장 김원일

‘문화’하면 으레 예술을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 삶의 의미 있는 모든 것이 문화다. 한마디로 사람이 문화다. 예술문화, 과학문화, 생명문화, 사회문화, 공공문화 등 다양한 문화 영역을 아우르는 사람 간의 창의적인 교류가 더 많아져야 한다. 이를 통해 다같이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 하고, 이는 월드컬처오픈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다. 문화기획자, 공익활동가, 컬처디자이너들과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그런 사회, 그런 지구촌을 만들어나가자. 그리고 이번 행사 때문에 청주를 처음 방문했는데 아름답고 열정 가득하고 인정 많은 도시와 시민들에게 감명 받았다. 청주 옛 연초제조창은 국보로 가꾸어야 할 훌륭한 유산이고 그렇게 보존,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집행위원장, 월드컬처오픈 대외협력단 단장 정달호

공간이 너무 좋아서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겠다는 설렘 때문에 하루만 머무르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행사 기간 내내 청주에 머물렀다. 서울 중심의 문화와 문화 자본에서 탈피해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는 값진 시간이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문화로 행복하고 문화로 자원이 되는 세상을 만들면 좋겠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교수 안진의



앞으로 이어지는 여정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의 성공적인 개최 및 대회가 지속가능한 결과물로 남기를 바라는 지역 시민들과 국내외 컬처디자이너들의 목소리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큽니다.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지역에 문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행사/프로그램의 필요성

지역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지역 공익활동가들의 프로그램이 지역발전에 유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시스템의 필요성

지역 활동가들이 상호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

전국의 지역 활동가 및 글로벌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의 필요성

이러한 공익활동가들의 모임이 일반 시민들에게 오픈되어 누구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교육의 장의 필요성

이는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월드컬처오픈이 지난 수 년간 집중적으로 펼쳐온 공익적 창의인재 발굴, 교류, 육성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큰 공동체를 같이 생각하는 공익적인 마인드의 인재들,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인재들.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오늘날 세계적 흐름을 생각하면 지역 기반의 인재들이 창의성과 공익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월드컬처오픈은 전국 및 세계의 다양한 민·관 부문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공익적인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인 배움의장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들 간의 국제적인 상호 연계·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Better Together 세계문화대회와 같은 창의적인 글로벌 교류의장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을 함께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Abigail Cox	HOLSTEE	Patrick Lee
Afef Bourguiba	Huda Ali	Ping Ping Worakate
Alexander Sanchez	Hui Chen Chao	Pongpisuth Jongudomsuk
Alexandra Tsay	Husam Gameel Mohammed Mosaed Alsayani	Qingli Lily Liu
AlGohaly Elham	Ilanit Adar	Qiqi Xu
Allyce Yang	Janice Zhang	Raja Shabir Mohd Khan
Alvaro Delicado Navas	Jasmine Chin	Ramita Sachdev
Amelia Kroner	Jean-Paul Samputu	Sam Stowers
Anatolii Kondiakov	Jenna Lee Merrill	Sara Merner
Anda Yoshina	Jessica Min Paik	Sarah Lovatt
Anniika lee	Jin Hong Kim	Sardor Gaziev
Antonio Stark	Jinna Kim	Sebastian Hunter
Ariff Ariffin Hew	Jolade Oshodi	Seongwook Choo
Ataullah Shirzai	Jonathan Nylander	Sharon Landon
Benjamin Chen	Jonathan Skjøtt	Shiao-li Green
Bikzad Abdullah	Jose Nieves Flores Maynez	Shinji Ochiai
Blanca Madrigal Muller	Jake Schaeffer	Shui Lam Wong
Camille Anne Tajon	Jude Curriwan	Shulin Zhang
Catalina Ciubar	Julian Grossé	Shuo Yang
Charlotte Smith	Kalia Barkai	Sofia Camussi
Chenhui Luo	Kat Chamberlain	Sofya Khachatryan
Cholpon Zhunusova	Kate Gilbert	Sultanna Krispil
Debra Simon	Kenn Gutierrez	Takahashi Sumiyo
Dennis Hong	Khadija al-Salami	Tieba Traore
Derrick Wang	Kishimi Ichiro	Together Further
Dikshan Kharel	Krista Nido	Tuan Tran
Dorotea Deshishku	Kseniya Tsoy	Uyen Nguyen
Emmanuel Benbihy	Lara Yacoub Bach	Xi Jia Zhou
Faozia Farooq Thabit Moqbel	Manav Mehta	Xia Fei Chiew
Fatimaah Joso Menefee	Maoyi Qiu	Xiaoyan Cao
Frances Pak	Marc-Elliot Mastrandrea	Yang Lei
Fung King Yan Tiffany	Mir Salamuddin Hakim	Yinghao Zhu
Gal Matoki	Mohd Musaib Haidari	Yinwei Sun
Gwen Yi Wong	Monday Onoriode Ushurhe	Yueh An Chang
Hana McMahon-Cole	Munair Simpson	Zachary Witzel
Hanna Suh	Nada Dhaouadi	Zahra Hussaini
Hans Galliker	Nael Hailemariam Teklehaimanot	감연희
Harem Ali	Natasha Sim	강병진

강선주	김두영	김영식	김태희	맹은성	박종관	선우진아	양은정	윤이나	이승재	이창민	정승호	최은지	홍영란
강성은	김명혜	김영재	김평안	모민수	박종석	성수아	양 준	윤지수	이승호	이 철	정용하	최은하	홍정아
강소민	김명희	김영환	김하양	문승태	박종호	손병호	양혜선	윤혜성	이시종	이하림	정원일	최일섭	황길수
강일천	김 민	김영희	김하영	문윤정	박주영	손순옥	어경선	윤혜영	이애향	이 혁	정유란	최종권	황성규
강재국	김민균	김예서	김하은	문정화	박주희	손연우	엄수정	윤 황	이연수	이현아	정은영	최진희	황수경
강정수	김민서	김예슬	김하현	문주임	박준미	손지은	엄우환	이가빈	이영선	이현주	정은혜	최 천	황오현
강진수	김민아	김예원	김현식	문호영	박준세	손진옥	엄태준	이가영	이영순	이호정	정재연	최현준	황은주
고경애	김민정	김예지	김현석	민병동	박준하	손현준	염정아	이강표	이영용	이화진	정종기	추비선	황춘국
고남령	김민지	김용숙	김현승	민소윤	박중현	송경민	염천강	이경남	이영우	이효정	정종원	추우진	
고도원	김민철	김원일	김현우	박나은	박지영	송성진	오명택	이경범	이영주	이 훈	정주환	편해문	
고미수	김병수	김원중	김현지	박대희	박지영	송승철	오민정	이구원	이오은	임승빈	정지은	하광태	
고영구	김사성	김은순	김형희	박무진	박지윤	송영은	오선준	이금재	이용강	임자함	정지은	하재희	
고영찬	김상결	김정순	김혜숙	박문규	박지현	송재만	오승진	이기호	이용미	임재건	정태형	하탁균	
고의경	김상금	김정인	김혜원	박상연	박진숙	송재봉	오옥만	이남희	이우주	임재균	정현주	하효선	
고장홍	김상은	김정희	김혜윤	박상일	박진실	송재호	오용섭	이덕현	이우진	임철순	정회원	한경아	
고희탁	김상정	김종민	김혜인	박상정	박창호	송현경	오주연	이동원	이원빈	장구보	정희장	한길우	
곽정은	김상희	김종칠	김호영	박상훈	박춘성	신다혜	오혜리	이동은	이유준	장성권	조경민	한나리	
곽한나	김서현	김주언	김호일	박석영	박태현	신보섭	오혜자	이동현	이 움	장수혜	조대연	한동환	
구병모	김서형	김주연	김홍선	박성준	박한별	신숙경	오흥지	이두영	이은아	장정환	조송주	한명희	
구은정	김선혜	김주영	김효정	박세린	박한아	신승우	용은비	이들님	이은진	장 첨	조연우	한병욱	
권나윤	김선화	김주현	김효진	박소은	박한울	신아연	우상임	이미령	이은혜	장한나	조원영	한상옥	
권다영	김성연	김준태	김희주	박소희	박현정	신안수	우윤미	이민규	이은호	장한라	조주희	한성희	
권미루	김성일	김준표	나현수	박수정	박혜성	신윤섭	우정현	이민우	이인수	장현우	주승욱	한소라	
권오혁	김세정	김지유	남유리	박수진	반민정	신윤예	원능연	이범석	이장원	전기주	지광철	한 솔	
김경식	김세종	김지은	남정호	박수훈	반종홍	신은하	유병숙	이병용	이재상	전민희	지형태	한신자	
김경현	김수종	김지현	남현경	박신영	배슬기	신재원	유상영	이보미	이재선	전보형	지희준	한유리	
김관수	김수지	김진규	노동주	박영순	백민선	신주연	유서영	이복재	이재영	전성경	차한백	한정아	
김광남	김승환	김진수	노석웅	박완희	백상진	신 찬	유선곤	이상호	이전진	전성호	차현희	한지연	
김광수	김승희	김진아	노수연	박요셉	백시영	신현덕	유수진	이서후	이정섭	전예진	천아영	함정희	
김광일	김시은	김진영	라온범	박용수	백인석	신혜빈	유재홍	이선덕	이정은	전정훈	천지남	허민조	
김교령	김신옥	김진홍	류동규	박은영	변광섭	안다비	유정현	이성동	이정화	전찬호	최강석	허소희	
김기덕	김신학	김채민	류정환	박은주	봉승후	안병호	유준재	이성철	이정희	전희진	최미지	허수연	
김기중	김애경	김채현	류종찬	박은희	서동석	안성민	유현재	이소현	이종국	정기환	최상열	허찬국	
김기현	김양식	김청솔	류지수	박인임	서미희	안준호	육한결	이수원	이준서	정달호	최석원	현 주	
김기현	김여원	김충식	류한호	박재민	서윤아	안진의	윤석도	이수인	이지영	정도연	최성문	현진우	
김다은	김연설	김태선	유릴리안	박정민	서익진	양동준	윤성미	이숙희	이지현	정만희	최용환	형광우	
김덕용	김영민	김태영	마용철	박정현	서정인	양미경	윤수경	이슬기	이지혜	정세미	최유리	홍석현	
김도현	김영순	김태진	마한나	박정희	서준호	양아진	윤아정	이승석	이진호	정소현	최은주	홍성훈	

**WORLD
CULTURE
OPEN**

AT A GLANCE



월드컬처오픈

월드컬처오픈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다양한 공익적 시도를 펼쳐가는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탱크로,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적극적으로 연결, 기획하는
열린문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sion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세상” A Better World Together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는 공감 속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나눔과 협업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창의적인 시민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지구공동체를 꿈꿉니다.



Mission

“전세계적으로 열린문화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 전문성과 열정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는
지구촌 곳곳의 컬처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Goals

1.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린 생각들이 교류되는 온오프라인의 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2. 더 나은 사회를 디자인하는 문화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세상에 알립니다.
3. 지구촌 곳곳의 열린 공간들을 연결하며 활동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ow We Work

월드컬처오픈은 열린문화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다방면의 독립적 활동가들이 협업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구조를 지향합니다.

크고 작은 목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모여 함께 공익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운동인 만큼, 각 프로젝트의 목적에 공감하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모여서 협력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유연한 운영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과 관심영역을 가진 독립적 활동가들로 프리랜서, 문화기획자, 청년단체, 행사운영전문가, 학생, 대학 교수나 연구자, 기업가, 작가, 일반인 등 다양하며, 영리, 비영리, 자원봉사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업무를 위한 인력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보다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코워킹 공간과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더 널리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체들이 서로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섯은 버섯으로서의 소중한 색깔을 지키며 버섯으로 성장하지,
하늘 높이 솟아나는 나무처럼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치식물과 버섯과 나무는 굉장히 잘 짜여진 복합적 협업 시스템에 의해
영양분과 수분과 그늘을 나누어 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최고로 멋있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역할 합니다.”

프레데릭 라루 <조직의 재창조: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조직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월드컬처오픈의 협업시스템

Collaboration is the key



주요 활동분야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프로젝트
*예시입니다.

주요 연혁

1999 - 2001 운동의 시작

WCO 뉴 밀레니엄 문화 프로젝트 출범, 1999

문화 예술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론칭, 2000

공간나눔운동 C!here (당시 Open Center) 론칭, 메릴랜드, 뉴욕, 2001

2002 - 2004 세계를 향한 인사

World Culture Open Day 지정, 워싱턴 D.C., 2003

WCO Global Festival 의 사전 대회, 워싱턴 D.C., 서울, 2003

산학협력 지원, 2004,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cultural Educ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Issues,

University of Georgia

공간나눔운동 C!here 론칭, 서울, 2003

새천년의 꿈 콘서트, 2004, 뉴욕 카네기홀

WCO Fair, 2004, 뉴욕

World Culture Open Day 지정, 뉴욕, 2004

WCO Fair in Beijing, 2004, 북경 인민대회당

WCO Awards 제정, 2004, Jose Antonio Abreu 박사 및 El Sistema 지원

WCO Youth Seminar, 2004, 서울, UNESCO 공동개최

국제 문화장관 회의, 2004, 뉴욕

제1회 WCO Global Festival, 2004, 뉴욕, 서울

2005 - 2007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다

세계합창대회, 2005, 뉴욕 링컨센터

UNFAO(세계식량기구) 지원, 2005, 세계식량기구 기아퇴치운동 캠페인 후원

Indonesia Aceh Project, 2005, 쓰나미 재해 지역 인도네시아 아체

문화재건 프로그램 지원

UN DPI/NGO Conference, 2005, "A New Paradigm for Security" 포럼 개최, 뉴욕

르완다 HIV 고아를 위한 문화지원 프로젝트, 2006

WCO International Creative Economy Conference for Development, 2006,

키갈리, UNDP/South-South Cooperation 공동개최

아프리카 문화장관 회의, 2006, 키갈리

WCO-FESPAD, 2006, 르완다 문화부와 개최협력, 범아프리카 댄스 축제, 키갈리

UN Global Youth Summit, 2006, UNOSDP와 개최협력, 뉴욕

Youth United Against Malaria Concert, 2006,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

말라리아퇴치 캠페인 콘서트, 뉴욕

2008 - 2011 동아시아 지역에 운동의 씨앗을 퍼뜨리다

WCO 아시아미래전략포럼, 2008, 북경

C!here Expo, 2008, 뉴욕

공간나눔운동 C!here 론칭, 2008, 북경

Beijing WCO Friends Forum, 2009, 북경

WCO Gala Concert, 2009, 북경

동아시아 문화교류 콘서트 (한국-중국-일본-몽고), 2009~2014, 북경, 도쿄

W스테이지 문화인큐베이팅 공간지원활동, 2010~, 서울

젊은 예술가 발굴 기획공연 시리즈, 2010, 서울

문화나눔 캠페인 콘서트 시리즈 론칭, 2010, 서울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돋기 후원공연, 2011, 이와테현 어린이 문화지원

2012 - 2016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향한 Culture! Everyday, Everywhere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음악전문학교 후원, 2012, 페르가나

지혜나눔 문화토크콘서트 프로젝트 C!talk Beijing 론칭, 2012~, 북경

C!talk Seoul 론칭, 2013~, 서울

WCO '21세기 대안문명을 찾아서' 연구 프로젝트 발족, 2013

Beijing Design Week WCO디자이너전시 및 디자인워크숍 개최, 2013, 북경

영상미디어교육을 통한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Tigwizane지원, 2013,

솔로몬, 잠비아

'오픈컬처랩' 열린문화실험실 론칭 및 컬처디자인 운동 발족, 2013-

YES! WE ARE BETTER TOGETHER

2018년 1월 15일 발행

월드컬처오픈

주 소 서울시 종구 서소문로 89-31 N빌딩 1층 오렌지컨테이너

전화 02.6958.8870

이메일 hello@worldcultureopen.org

홈페이지 www.worldcultureopen.org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월드컬처오픈 화동문화재단에 있습니다. 책의 내용과 그림은 저작자의 서면 등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pyright @ World Culture Open 2018 All rights reserved.

비매품

공동주최



청주시
CHEONGJU
CITY

후원



WORLD
CULTURE
OPEN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CHUNGCHEONGBUK-DO

